2005 2월호 제359호

주부교실

사단법인 전국주부교실중앙회
NATIONAL COUNCIL OF HOMEMAKERS' CLASSES

본회는
주부의 사회성을
개발하고, 봉사정신을
함양함으로써
가정과 지역사회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주부에게 부하된 사명과
역할을 체득 실천함에
있어 주부중심,
지역중심의 조직 및
활동전개로 새 주부상을
정립해 나간다.

월간 주부교실 2월호

발 행 일 : 2005. 2. 20
등 록 일 : 1972. 8. 31
등록번호 : 라-1616호

✱발 행 : 사단법인전국주부교실중앙회
발행인 : 이윤자
편집인 : 김태련
주 소 : 서울시 중구 충무로 5가 19-3
전 화 : 2265-3627, 3628, 0637
2266-5870, 2273-6300, 2485
ＦＡＸ : 2279-9341
http://www.nchc.or.kr
✱인 쇄 : (주)헤럴드미디어
대표 홍 정 욱

비매품

생각해봅시다	4	한 반 38명중 36명이 의대를 지방하는 나라/박성희
실태조사	6	화장품 가격 인터넷 쇼핑몰별로 가격차이 심해/이민선
	8	2005년 설 성수품 가격조사/최애연
의식조사	10	지속가능한 소비행태/최애연
소비자지식	13	우리의 인삼, 이렇게 구별하자
소비자정보	14	불법 다단계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한 지침
고발사례	16	소비자의 소리/곽정자
소비자뉴스	18	수입 디카 '정품' 인지 꼭 살피세요
식품뉴스	20	시판 브랜드 쌀 등급 못미덥다
여성뉴스	22	가정폭력범 48시간 격리
북한뉴스	24	북한의 여성
주부시대	25	주부를 위한 인터넷 사이트 소개
생활정보	26	현금영수증 회원 가입해야
알아봅시다	28	생식제품, 열처리 하지 않고 제조해 식품 안전에 주의
금융길라잡이	30	금융거래, 아는 만큼 보인다
수필	32	당신의 하루/김녕희
환경이야기	34	쾌적한 실내공기로 바꾸자
음식이야기	36	색깔로 먹는다(블랙푸드 열풍)
가정요리	38	식탁에 봄이 왔어요!
건강	40	우울증은 병, 꼭 치료받아야
문화 엿보기	41	우리의 독특한 '방' 문화 - 찜질방
여행	42	봄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곳
지부소식	43	전국 16개 시·도 지부 및 234개 시·군·구 지회 소식
주부교실게시판	50	제64기 주부대학 수료식 및 제 65기 개강 안내

〈표지사진 : 등산반 제18차 정기총회(중앙회, 05. 2. 15), 현금영수증 주고 받기 캠페인(부산시지부, 05. 2. 22)〉

한 반 38명중 36명이 의대를 지망하는 나라

〈박성희 /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공주를 키워주는 회사는 없다' 저자〉

호주에 사는 친구가 있다. 서울에 왔기에 만났더니 대학에 진학하는 딸아이가 장차 보험계리인이 되고 싶어 한다며 보험회사 임원을 좀 소개해줬으면 했다. 딸이 알아봐달라는 것도 있고 국내 보험계리인의 상황과 전망이 어떤지도 궁금하다는 것이었다.

"대학을 졸업하는 것도 아닌데 벌써 뭘" 싶었지만 모처럼의 부탁이어서 아는 분에게 얘기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제 대학에 입학한다면서, 나중에 만나지 뭐" 하는 통에 적당히 둘러대고 말았다.

캐나다에 오래 살다 호주로 간 그 친구에 따르면 두 나라 모두 초등학교 때부터 직업에 대한 다양한 교육이 이뤄져 고등학생이 되면 아이들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결정해 전공과 대학을 선택한다는 것이었다. 아이가 그러니 부모도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런데 우리는? 아들이 고2 때, 학부형 총회 참석차 학교에 갔다가 아들 반 아이들의 희망 대학이 적힌 표를 보게 됐다. 38명 가운데 아들을 비롯한 2명을 제외한 36명이 '의대'를 지망하고 있었다. 깜짝 놀라 담임선생님께 어떻게 된 일이냐고 여쭤봤다. "아직 2학년이라 그렇기도 하지만 실제 이과생 대부분이 의대를 지망한다"는 답이었다.

실제 진학생은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더니 이과생 3백여 명중 지방 소재 의대까지 합쳐 10여명이라고 했다. 나머지 대부분은 원치 않는 학과에 입학한다는 얘기인 셈이다. 아이들의 의대 지망이 모두 자발적 선택인지, 아니면 부모의 희망사항인지는 알 수 없다.

의사가 되는데 필요한 공부와 비용은 결코 만만치 않다. 예과 2년에 본과 4년까지 학부만 6년이고, 인턴 레지던트에 군대까지 마치자면 13~14년은 족히 걸린다. 대학 등록금도 인문계 대학의 거의 2배에 이른다. 의대에 입학하는 것으로 일이 끝나는 게 아니라 본인과 부모 모두 엄청난 경제적 물리적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힘들여 의사가 되고 나면? 의사가 되려는 목적은 각기 다르겠지만 IMF 이후 부쩍 의대지망생이 늘어난데 비춰볼 때 적성이나 의사로서의 사명감보다는 안정적 직업이라는 생각에 기초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의사가 무조건 일반 회사원보다 더 번다는 생각은 사실과 다르다. 의대생들이 공부와 수련에 매달리는 동안 일찌감치 대학을 졸업하고 경력을 쌓아 의사보다 훨씬 많은 연봉을 받는 사람도 많다. 대신 정년이 없지 않느냐고 할지 모르지만, 의사도 나이 들어 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부문도 많다.

개업은 곧 성공이라는 등식도 깨져 의약분업 이후 경영난으로 고생하는 개업의가 수두룩하다. 지금 의대에 입학한 아이들이 의사가 될 즈음엔 상황이 더욱 나빠질 것이다. 의사 수는 폭증하는데 인구는 계속 줄어들기 때문이다. 설사 사회적인 대우는 받는다 해도 의사라는 직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부문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평생 아프거나 불편한 환자와 씨름해야 하고, 부득이 일어날 수 있는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에도 시달린다.

대학의 전공은 본인의 적성은 물론 졸업 후의 진로, 짧게는 4-5년, 길게는 10년 후에 뜰 직업을 고려해서 선택해야 한다. 배아복제 연구로 유명한 황우석 교수의 입학 당시 서울대 수의학과는 농과대학 소속으로 사람들의 관심밖에 있었다. 그렇지만 황 교수는 물론 당시 수의학과 입학생 상당수가 지금 생명공학 분야 등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다.

시대가 변하면 직업에 대한 관념도 변하고, 특정직업인이 누릴 수 있는 지위도 달라진다. 앞으로 20년 안에 현재의 직업 8백 개가 없어진다는데도 우리나라 부모들은 여전히 의사 변호사 등 '사' 직업이 최고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세상에 자신이 알지 못하는 직업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 채, 자식들의 적성과 취미 특기가 무엇인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자신의 적은 선험에 의존해 '사'자 직업을 얻으라고 부추기고 압력을 가하는 것이다.

부모뿐이랴. 세상이 생각의 속도로 바뀌는데도 학교는 물론 그 어디서도 세상엔 어떤 직업들이 있고, 그 직업의 장단점과 전망은 어떻고, 그 일을 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가르쳐주지 않는다. 아이들의 능력을 오로지 성적순으로 재단하고, 한반 38명중 36명이 하고 싶은 일과 상관없이 의대를 가겠다고 나서는 사태는 이런 데서 비롯된 일일 것이다.

아이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부모는 자식의 공부를 지원해야 할 책무를 지닌다. 공부가 인생의 상한선을 결정하진 않지만 하한선을 결정할 수는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식의 적성과 특기는 물론 시대의 변화 및 세상의 흐름을 고려하지 않고 지나간 시대의 직업관에 매달려 특정학과나 특정대학을 고집하는 걸 자식을 위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을까.

본인의 뜻이었건 아니건 지망학과나 지망대학에 입학하지 못한 사람은 두고두고 자신에 대한 실망감에 시달릴 테고 이는 일종의 콤플렉스로 작용, 세상을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막고 자유로운 사고와 삶을 방해할 수도 있다. 한반 38명중 36명이 의대를 지원하는 일이 부모 특히 엄마의 소망에 따른 것이라면 이제 정말 사라질 때도 됐다. ■

화장품 가격 인터넷 쇼핑몰별로 가격차이 심해

- 전자상거래업체 의무표시사항, 제조일자, 배송비 확인하고 구입해야 -

화장품은 이제 여성뿐만 아니라 남녀 모두에게 공통으로 사용되는 생활용품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바쁜 일상을 살고 있는 현대인에게 직접 매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집에서 편안히 배달 받아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함 때문에 화장품의 인터넷상의 판매는 날로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회는 인터넷상의 화장품 전문쇼핑몰 6개 업체(G.market, K.merce, K Tmall, Lgeshop, 온켓, 인터파크)에서 공통으로 판매되고 있는 국내 생산 브랜드 13개의 기초제품 4가지(스킨, 로션, 크림, 에센스) 품목을 대상으로 제조일 2년 이내로 정하여 가격 비교를 통해 판매 가격 실태를 조사하였다.

인터넷 쇼핑몰마다 화장품 가격 다양해 꼼꼼히 확인해야

스킨류는 기초 화장품 중 가장 먼저 바르며 제품의 특성상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어 용량도 로션과 같거나 약 30㎖정도 많은 것이 특징이다. 가격 면에서 4가지 품목 중 가장 저렴한 가격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드별 가격추이를 살펴보면 마몽드가 가장 낮은 가격으로 평균 9,900원을 나타냈으며 최고가와 최저가의 차이는 900원의 차이로 각 사이트마다 가격차이가 별로 없어 상대적으로 제품의 가격에 신뢰를 느낄 수 있었다.

가장 비싼 가격을 형성하는 엔프라니는 최고가와 최저가의 차이가 13,550원으로 가격의 폭이 각 판매 사이트마다 매우 커서 상대적으로 가격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다.

스킨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는 로션의 경우는 스킨보다는 대체로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스킨과 마찬가지로 마몽드가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격의 차이가 매우 적게 나타났다. 가장 높은 가격대는 스킨에서와 마찬가지로 엔프라니로 나타났으며 사이트마다 가격차이도 가장 높게 나타났다.

크림의 경우 역시 마몽드가 가장 낮은 가격과 사이트간의 가격 차이를 보였고, 가장 높은 가격을 나타내는 브랜드는 아이오페로 평균 35,380원으로 최고가와 최저가의 차이는 12,100원으로 사이트몰간의 상당한 차이를 나타냈다. 반면 다음으로 높은 가격대의 탑뉴스 경우는 가격차이가 8,250원으로 높은 가격 3순위를 차지하는 엔프라니의 가격차이 19,000에 비하여 상당히 적은 차이를 나타냄을 볼 수 있었다.

크림 전에 바르거나 크림 사용 후 바르는 에센스의 경우 조사된 4가지 품목 중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높은 가격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최고가와 최저가의 차이도 스킨, 로션, 크림에 비해 크게 나고 있었다.

마몽드가 가장 적은 차이를 나타내 3,550원으로 나타났고, 평균가 40,833원을 나타낸 엔프라니의 사이트간의 가격 차이는 17,500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스킨, 로션, 크림, 에센스의 순으로 가격이 높았으며 조사된 총 6개의 화장품 사이트에서는 G.market이 가장 저렴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총 평균가도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나타났고, 평균가를 살펴보면 다음으로 온켓, K.merce 순이었으며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하는 화장품 몰은 인터파크였다.

인터파크의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 일부를 제외하고는 무료 배송이어서 낮은 가격이나 소량을 구매할 경우에 오히려 유리했고, 다른 사이트는 30,000원에서 50,000원 이상을 구매해야만 택배비가 제외되므로 소비자 선택 시 비교구매가 필요한 부분이다.

6개 사이트에 공통으로 판매하는 인기브랜드를 찾다보니 제조일자를 2년으로 제한하기는 했지만 기간의 차이가 매우 심해 몇몇 브랜드는 생산을 중단, 아직은 시판되고 있으나 이미 만들어 놓은 제품만 싸게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같은 브랜드라도 용기를 변형하면서 기능첨가 제품이라고 하여 가격을 올리고 먼저 만들어 놓은 제품을 싸게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에게 혼란을 초래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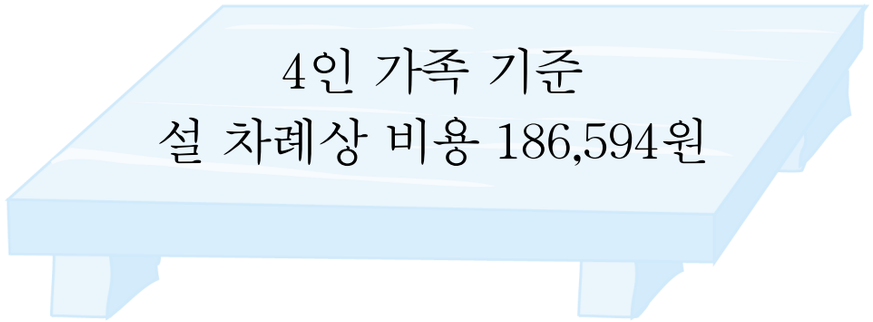
화장품 관련 업체의 가격 투명성 공개
쇼핑몰은 전자상거래 피해구제 의무화 실시
소비자 구매 선택 시 관련 상품 꼼꼼히 확인

살펴본 바와 같이 화장품 시장이 다양해지면서 시판을 넘어서 화장품을 인터넷에서도 구입할 수 있어 소비자 선택의 폭은 넓어졌으나 오랜 시간을 두고 판매망을 구축해온 시판에 비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인터넷상의 판매는 아직 소비자로 하여금 혼란을 초래해 불이익을 줄 소지가 다양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화장품 관련 업체는 제조일자 표시와 과장된 효과 표시 금지, 사용 시 부작용 및 주의 사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고 화장품 가격 투명성 확보에 기업 스스로가 앞장서야 한다.

화장품 쇼핑몰은 관련업체와 정부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전자상거래 피해구제 의무화를 실시해 소비자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

끝으로, 소비자는 상품을 직접 보지 않고 구매하므로 쇼핑몰업체 이용약관을 읽어보고 상품의 제조일자나 배송비 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 구매해야 한다. 〈이민선 / 본회 소비자보호국 간사〉



서울시내 25개구의 백화점(22곳), 할인매장(32곳), 일반슈퍼마켓(29곳), 재래시장(17곳) 등 총 100곳에 대하여 1월 26일부터 1월 27일까지 설 성수품(총 27개품목)을 조사한 결과 4인가족 기준으로 주요 성수품목의 총구입비용은 186,594원으로 조사되었다.

※ 지난 1월 17일 보도된 농림부 자료에서는 158,530원으로 조사되었는데 거의 조사항목이 비슷한 것으로 보아 설을 앞두고 설 성수품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17.7%정도 인상된 것으로 추정된다.

(1) 설 주요품목 비용(4인가족기준)

▶4인 가족기준으로 설 주요품목(22개 품목)인 깐녹두500g, 배(신고 5개), 사과(부사 5개), 단감 5개, 밤1kg, 대추300g, 곶감 8개, 시금치400g, 도라지400g, 고사리400g, 참조기, 동태포500g, 북어포1마리, 쇠고기(등심 1kg), 돼지고기(목심 1kg), 닭고기(1kg), 계란(1판), 가래떡(2kg), 밀가루(3kg), 두부(5모), 청주(1.8l), 약과(350g)의 총 구입비용은 186,594원으로 나타났다.

▶업태별로 비교해보면 재래시장은 145,887원으로 가장 구입비가 저렴하였고, 슈퍼마켓은 166,663원, 할인마트 190,407원, 백화점 235,662원 순이어서 재래시장에서 구입하는 것이 백화점에서 구입하는 비용보다 89,775원(38.1%)이 저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설 성수품 업태별 평균가격 비교

▶설 성수품 평균가격의 최고가와 최저가를 업태별로 비교해보면, 평균가격의 최고가가 많은 곳은 백화점으로서 27개 품목)으로 조사되었고, 평균가격의 최저가가 가장 많은 곳은 재래시장 23개 품목으로 조사되었다.

전반적으로 볼 때

- 백화점은 거의 대부분의 품목에서 평균가의 최고가(27개 품목)를 차지하였고, 재래시장이 평균가의 최저가(23개 품목)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재래시장에서는 특히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의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할인마트는 공산품의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태별 최고평균가와 최저평균가를 비교해보면 최저평균가와 최고평균가의 가격차가 5.2%에서 59.0%까지 가격차가 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업태별 가격이 가장 싼 품목

▶ 이번조사결과 업태별로 가장 싼 품목을 살펴보면 재래시장(13곳)이 가장 많았고, 슈퍼마켓(11곳), 할인마트와 백화점(각각 4곳)순으로 나타났다. 〈최애연 / 본회 소비자보호국 부장〉

<설 주요 품목 구입비용 : 4인 가족기준>

주요 품목(22개)	총 평균가	백화점	할인마트	슈퍼마켓	재래시장
깐녹두, 배, 사과, 단감, 밤, 대추, 곶감, 시금치, 도라지, 고사리, 참조기, 동태포, 북어포,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가래떡, 밀가루, 두부, 청주, 약과	186,594	235,662	190,407,	166,663	145,887

<업태별로 가장 싼 품목>

업태별	가장 싼 곳	품 목	가장 싼 곳	품 목
재래시장	경동시장(제기동):6개	수입산깐녹두, 밤, 수입산 참깨, 수입곶감, 쇠고기, 가래떡	연서시장(불광),공릉시장(노원), 광장시장(동대문),천호시장(강동)	밤
	도깨비시장(방학동):3개	밤, 수입산도라지, 약과	중앙시장(행당)	국산 깐녹두
	은행나무골목시장(시흥):2개	국산참깨, 밤	수유시장(강북)	국산곶감
	우림시장(망우)	밤, 두부	중앙시장(영등포)	닭고기
			은마상가시장(대치), 인왕시장(서대문)	두부
슈퍼마켓	유마트(동대문):3개	배,북어포, 두부	롯데슈퍼(서초)	사과
			중앙유통(영등포)	밤
	파워마트(공릉):3개	배추, 동태포,식용유	세계로마트(홍제)	감
			효성마트(강북)	시금치
			모닝할인마트(명일)	양파
	델타마트(중구):2개	수입산고사리, 약과	공항마트(강서)	수입산고사리
			CM마트(구월)	돼지고기
			지오마트(구로)	식용유
할인마트	까르푸(목동)-국산 고사리	그랜드마트(화곡) - 수입산 참조기	이마트(구로점)-밀가루	하나로클럽(청동)-청주
백화점	세이브존(하계)-쌀	롯데백화점(청량리)-대추	경방필백화점(영등포)-국산도라지	신세계백화점(본점)-계란

녹색상품, 품질 향상으로 소비층 확대되고 있어 다양한 제품 만들어야

- 지속가능한 소비행태에 대한 소비자 의식조사 -

지속가능한 소비란, '최소한의 물질소비로 최대한의 삶의 만족을 얻는 소비행태'를 말한 것이다.

이에 본회에서는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등 지구환경위기가 점점 고조되고 있는 바, 환경보전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소비행태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환경보전적인 생활습관을 정착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자 지난 2004년 12월 9일~12월 29일까지 서울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소비행태에 대한 소비자 의식조사를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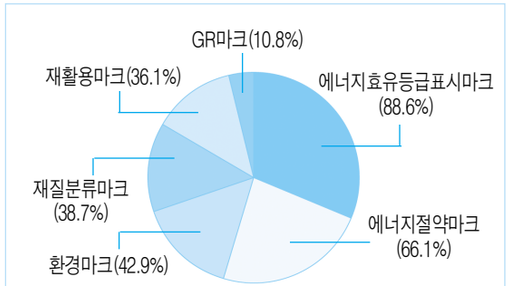
부문별 환경오염의 심각성 인정 – 공기오염에 대한 우려가 가장 높아

부문별 환경오염에 대한 조사결과 응답자 대부분이 심각하다는 의견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공기오염 97.2%로 심각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수질오염 93.9%, 해양오염 84.4%, 토양오염 83.2%순으로 조사되었다.

환경관련마크 인지도 – 에너지효율등급표시마크를 가장 많이 알고 있어

환경관련마크에 대한 인지도는 에너지효율등급표시마크를 응답자의 88.6%가 인지하고 있었고, 에너지절약마크 66.1%, 환경마크 42.9%, 재질분류마크 38.7%, 재활용마크 36.1%, GR마크 10.8%순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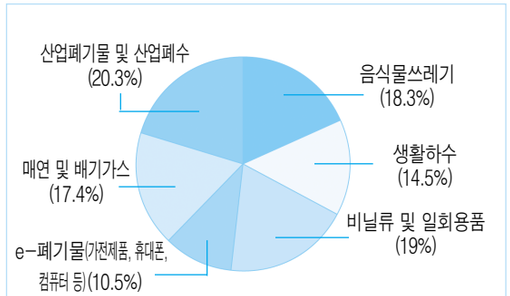
환경마크, 재질분류마크, 재활용마크, GR(우주재활용품 품질인증)마크 대한 인지도가 절반 이하로 낮은 것은 환경관련마크에 대한 미흡한 홍보와 국민의 관심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환경관련마크 인지도>

생활폐기물 중 환경오염도 (복수응답) – 산업폐기물 및 폐수의 심각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

생활속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중 환경오염도가 가장 심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는 산업폐기물 및 산업폐수 20.3%로 가장 높았고, 비닐류 및 일회용품 19.0%, 음식물쓰레기 18.3%, 매연 및 배기가스 17.4%, 생활하수 14.5%, e-폐기물(가전제품, 휴대폰, 컴퓨터 등) 10.5%순으로 조사되었다.



<생활폐기물 중 환경오염도>

중고제품 이용도 – 가격이 저렴해 만족, A/S와 품질엔 불만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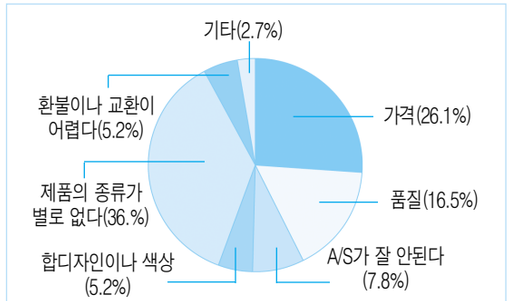
중고제품을 구매해본 경험이 없다 51.9%, 있다 48.1%로 절반정도가 중고제품을 구매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중고제품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스럽다 54.4%로 불만족스럽다 45.6%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제품이 만족스러운 이유로는 가격이 86.7%로 압도적으로 우세했고, 품질 6.6%, A/S 3.3%, 기타 2.8%, 디자인 0.6%순으로 조사되었고, 중고제품이 불만족스러운 이유로는 A/S가 잘 안 된다 36.8%, 품질 26.5%, 환불이나 교환이 어렵다 21.3%, 가격 11.0%, 디자인 3.2%, 기타 1.2%순으로 중고제품의 A/S나 품질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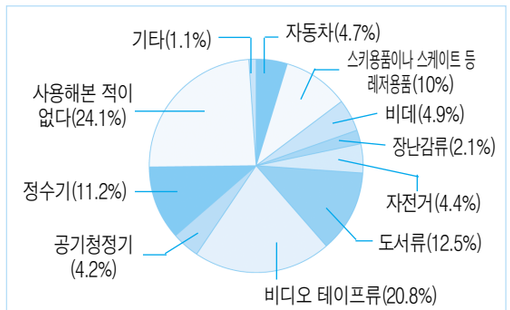
녹색상품 이용도 – 품질은 좋지만, 종류가 다양하지 못해 불만

녹색상품 구매한 적이 있다 67.1%, 없다 32.9%여서 2/3정도가 구매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녹색상품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스럽다 62.6%가 불만족스럽다 37.4%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녹색상품에 대해서 만족스러운 이유로는 품질 61.5%로 가장 높았고, 가격 14.5%, A/S가 잘 안된다 10.0%, 디자인이나 색상 5.5%, 환불이나 교환제도 4.5%, 기타 4.0%순이어서 품질면에 제일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불만족스러운 이유로는 제품의 종류가 별로 없다 36.5%, 가격 26.1%, 품질 16.5%, A/S가 잘 안된다 7.8%, 디자인이나 색상 5.2%, 환불이나 교환이 어렵다 5.2%, 기타 2.7%순이어서 제품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은 것에 가장 불만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녹색상품 이용도 불만족 이유>



<임대 서비스 이용 제품>

임대서비스 이용제품에 대한 것은 사용해본

적이 없다 24.1%, 비디오 테이프류 20.8%, 도서류 12.5%, 정수기 11.2%, 스키용품이나 스케이트 등 레저용품 10.0%, 비데 4.9%, 자동차 4.7%, 자전거 4.4%, 공기청정기 4.2%, 장난감류 2.1%, 기타 1.1%순으로 조사되어 임대서비스 이용제품에 대해서 사용해 본적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품 구입시 실천사항 – 에너지 효율등급이 높은 제품 구매에 가장 많이 응답

물품 구입시 실천사항으로 에너지 효율등급이 높은 제품을 구매하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1.0%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고, 재사용 가능한 용기에 담아 있는 제품 혹은 리필제품을 고른다에 76.0%, 과대 포장된 제품은 사지 않는 것에 59.9%, 장바구니를 사용한다에 대해서는 58.5%, 표백제나 색소를 함유하지 않은 제품을 고른다에 53.8%, 종이나 유리병과 같이 재활용이 가능한 용기에 포장된 제품을 고른다는 52.9%, 녹색상품(환경관련 마크 부착상품)을 우선 구매하는 지에 대해서는 48.6%, 재생종이, 알루미늄 등 재생원료로 만들어진 제품을 고른다에 35.2%, 스티로폼으로 포장된 제품은 사지 않는다에 대해서는 28.4%순으로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환경보전을 위한 가정에서의 실천사항 – 재활용 쓰레기 분리 배출에 적극 참여

환경보전을 위한 가정에서의 실천사항에 대해서는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하여 배출한다에 대해서는 89.8%가 지킨다는 응답이었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80.6%, 폐식용유를 종이에 닦아서 버린다에 74.5%, 옷과 장난감 등 재활용 가능한 제품은 친지나 이웃과 나누거나 교환하여 재활용한다에 72.7%, 일회용품 사용 안하기에 대해서는 60.2%, 합성세제를 계량하여 사용하기에 대해서는 58.8%, 음식찌꺼기는 모아서 퇴비로 이용한다에 35.7%, 랩·호일 사용 안하기에 대해서는 32.5%가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보전을 위하여 가장 시급한 것

환경보전을 위하여 가장 시급한 대책으로는 환경오염 업체에 대한 단속,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 24.2%, 대국민 환경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9.1%, 정부의 환경보전관련 법제도 및 정책을 정비하고 강화하여야 한다 18.6% 순으로 조사되었다.

결 론

현재 지구는 산업발달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환경적 위기에 처하고 있다.

이번 환경의식 조사결과, 소비자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 고조로 환경 정보 제공과 더불어 환경관련 상품에 대한 소비층 확대로 다양한 제품 개발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런 환경에 대한 의식 전환은 지속가능한 소비생활을 통해서 환경오염을 줄여 지구환경을 보전하자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지구 환경보전을 위해선 유한한 지구자원과 자연의 정화능력 한계를 고려해 소비자는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습관화하고, 기업은 환경친화적인 제품 개발, 정부는 환경오염 업체에 대한 단속과 대국민 환경교육 및 홍보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생활양식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데 힘써야 한다. 〈최애연 / 본회 소비자보호국 부장〉

우리의 인삼, 이렇게 구별하자

사용이 금지된 농약과 발암성 물질이 그대로 묻어 있는 중국산 인삼을 국산으로 속여 서울 경동시장 등 시중에 대량으로 유통시킨 인삼 판매상들이 적발되어, 또 다시 인삼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근 들어 전문가들도 진짜와 섞여 있는 가짜 인삼을 잘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가짜가 판치는 세상에 일반인인 소비자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식품인 고려 인삼을 구별할 줄 아는 기본적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

● 어떻게 구별하나?

– 한국 인삼은 색깔 밝고 자르면 나이테 선명, 중국산 인삼은 어두운 흑갈색

▲중국산
◀한국산

중국산 인삼은 우선 외형적으로 머리가 가늘고 긴 반면 고려 인삼은 굵고 짧다. 밭에서 캔 수삼을 쪄서 말린 홍삼의 경우는 머리를 손가락으로 퉁겨보면 국산은 머리가 붙어 있는 반면 중국산은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구분	고려 인삼	중국산 인삼
머리	굵고 짧다	가늘고 길다
몸통	윤기가 나고 색깔이 밝다	윤기가 없고, 색깔이 어둡다
다리	2~3개가 제대로 붙어 있다	1~2개뿐이거나, 없는 경우가 많다
냄새	구수한 인삼향이 풍긴다	풀, 흙냄새가 강하고 가끔 쉰내가 난다

● 전문가도 구별 쉽지 않아 포장지와 가격 꼼꼼히 살펴봐야

일부 업자들이 농약 함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중국삼을 물로 씻은 뒤 말려 판매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이를 구별해 내기는 거의 불가능하므로 포장지와 가격을 꼼꼼히 잘 살펴봐야 한다.

일단 '국산이지만 미검사품이라 포장이 없고 가격이 싸다' 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중국산 인삼은 국산 인삼에 비해 가격이 30~40% 저렴하므로 의심해 봐야 한다. 또한 중국산 인삼은 포장이 허술하고 검사필증이 없지만, 국산 인삼은 포장지에 검사필증, 원산지, 연수등급, 생산자 이름까지 표시되어 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중국산 인삼이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는데도 그 판매와 소비 판로의 불분명함으로 인해 검역도 제대로 실시 못한 검역당국과 인체에 치명적인 중국산 인삼을 속여 판매한 악덕 상인들이 반성의 기회로 삼아야 하며 아무런 사전지식 없이 무조건 싸고 좋다는 말에 현혹되어 구입부터 하고 보자는 소비자의 안일한 태도도 함께 고쳐야 한다. ■

악덕 다단계판매 행위 기승부려 소비자 피해 늘고 있어

- 판매원 가입 시 다단계회사의 등록 여부 · 자신의 가입단계 확인, 물건 구매 · 반품 · 환불시 회사의 등록 여부와 청약철회 기간 등 확인해야 -

현재 건전한 다단계 판매는 일부 허용되지만, 소비자가 판매원이 되고 판매원 가입이 순차적 · 단계적으로 확산되며 직접적인 대인판매 · 연고판매에 의존하는 다단계판매가 사행성 행위로 불법적인 피라미드식 판매를 통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회는 다단계판매업체의 악덕 판매행위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단계판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다단계 판매란?

다단계판매란 제조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 소비자와 같은 일반적인 유통경로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업자(회사)가 판매하는 상품을 사용해 본 소비자가 다단계판매 조직의 판매원이 되어 상품을 구입, 다음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과정이 순차적 ·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판매형식으로 외국에서도 건전한 다단계 판매는 허용되고 있다.

피라미드판매와 다른점은?

과거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피라미드판매는 상품가격을 품질에 비해 비싸게 책정하고 가입비, 교재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빼앗거나 상품구매를 강요하고 하위판매원 모집의무를 부과하며, 판매원의 수입을 주로 하위판매원을 모집하는 것 자체에서 발생토록 하여 사람장사의 성격이 짙고 환불 및 품질보증제도 미비 등의 폐단이 있었다.

이에 다단계판매가 사행성과 소비자피해를 야기하는 피라미드판매가 되지 않도록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다단계 판매에서 피해가 왜 발생하는가?

선순위의 판매원 가입자가 자신의 수익증대를 위하여 인맥, 거짓말 등을 이용하여 후순위의 가입자 및 소비자의 불필요한 구매를 부추기고 다단계판매회사는 이것을 교묘히 악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단계판매는 후순위자가 부담하는 물품대금, 가입비, 보증금, 예치금 등의 일정 부분이 선순위 판매자들에게 판매수당, 알선수수료, 장려금 등의 명목으로 배분되는 마진 증식 방법을 취하고 있으며, 이 같은 운영방식은 선순위자로 하여금 부당하거나 허위적인 방법으로 가입을 권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유통되는 상품의 품질, 성능, 가격, 계약의 불명확성, 계약해제에 따른 문제 등과 관련해서도 소비자피해가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다단계 판매에서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알아야 할 것들은?

● 다단계판매원이 되라고 권유를 받았을 때

물건을 일정한 액수이상 구매해야 판매원 가입이 된다고 하면 이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필요한 물건을 사게 되어 구매대금만 날려버릴 수 있다.

그러므로 어떤 다단계판매조직에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았을 때에는 먼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판매원으로 가입하기 이전에 가입하려는 회사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 · 도지사에 등록여부, 공제조합 체결여부 등을 꼭 확인하고, 만일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일단 가입을 보류한 후에 시 · 도(해당과) · 소비자단체 등에 문의한다.

● 다단계판매원으로부터 상품을 구매할 때

다단계회사의 등록 여부 및 공제조합계약체결 유효 여부를 확인하고 구매를 결정했다면

- 구매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한 후 계약내용을 숙지한다.
- 첫 구매 시에는 소량만 구매한다.
- 구매 후, 반드시 체결된 공제조합으로부터 공제번호통지서 발급을 확인한다.

● 반품을 해주지 않거나 환불을 지연하는 경우

청약철회를 방해하거나 청약철회를 받아주고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 업자의 말만 믿고 기다리다가 보상기간을 놓칠 수 있으니, 해당 업체가 가입한 공제조합에 공제사고 후 1개월 안에 보상신청을 직접 해야 한다.

- 직접판매공제조합 : 02-566-1202
-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 02-2058-0831 ~ 9

●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려 할 때 주의사항은?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려 할 때에는 본인이 가입하게 될 단계를 확인하여 충분한 기회가 남아 있는지 알아보아야 한다. 만약 가입하게 될 단계가 지나치게 하위로 내려가 있다면 그 회사는 이미 많은 기존 판매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며, 자신이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을 함으로써 후원수당을 받게 될 가능성이 그만큼 적기 때문이다.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을 했더라도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 등록증과 다단계판매원 수첩을 교부하지 않거나 부실한 내용의 것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바로 탈퇴하는 것이 좋다.

다단계판매원은 서명으로 탈퇴의사를 표시한 후 언제든지 다단계판매조직에서 탈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단계판매업자는 탈퇴에 대하여 어떠한 조건도 부과할 수 없다.

다단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 절차와 방법은?

다단계판매로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가 해약을 원할 경우에는 향후 분쟁이 발생했을 대 증거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체국의 내용증명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물건 구입 후 14일 이내에 내용증명 3부를 작성한 후,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우편 확인을 받아 발송해야만 위약금 없이 해약할 수 있다. 〈「불법 다단계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한 지침」에서 발췌〉

소비자의 소리

■ 방문판매로 구입한 도서와 토이블럭, 계약서 미교부로 두달만에 해약 반품처리

내용 박선영(서울시 중랑구 면목2동) 씨는 2004년 11월 30일 방문판매원의 호구조사 나왔다고 하여 문을 열어주었는데 정부에서 감언이설에 충동구매로 도서와 다지능 토이블럭을 모두 1백5만원에 구입하여 선금 1만원 지불하고 1백4만원은 카드로 5개월로 할부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정에 의해 해약하려 보니 계약서도 미교부 상태고, 영업사원의 휴대폰 번호뿐이어서 여러차례 연락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아 카드사로 문의하여 가맹점 주소와 연락처를 알게 되었고 그곳으로 확인하니 쌍문동 소재 서점이었다. 나중에 연락을 준다하면서 전혀 감감소식이고 당사자와 통화하라 했다. 기간이 너무 늦어서 절대 안된다는 말뿐이었고, 담당 영업사원과 통화했으나 적반하장 격이었다.

책은 그대로 보관 중일 뿐, 계약 체결을 허위정보에 속았고 부당행위에 항변하는 철회요청서를 본회의 도움으로 2005년 1월 22일 발송하였으나 묵묵부답임으로 해결방법을 재차 요청하였다.

처리 계약기간이 지났음을 이유로 판매자는 위약금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지연되었음을 주장하고, 주소지 확인즉시 철회권 행사했고, 처음부터 신분위장, 계약서 미교부, 허위정보제공 등(방문판매법 7조 위반사항)을 사유로 단순히 기간경과만을 트집잡는 위약금 요구는 부당행위이며 상품성 훼손이 안되었으므로 2월 3일 영업사원이 방문 상품을 전부 직접 회수해 가고 위약금 없이 해약처리 하였다.

■ 명품 브랜드는 바겐세일이 없다기에 거금 주고 구입했는데 며칠 후 세일 시작

내용 박진희(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씨는 2004년 12월 5일 백화점 명품매장에서 남성 정장, 재킷, 남방, 바지 등 총4백30만원에 구입하였다.

구입하기전 매장 점원에게 앞으로 바겐세일 하지 않느냐고 물어보니까 명품브랜드는 세일이 없다고 하여 구입했지만 며칠 후에 세일기간에 대한 전단지가 와서 억울하다고 신고하였다.

처리 사업자의 법적과실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소비자가 바겐세일 기간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기 때문에 해당 백화점 고객만족팀 담당과 매장측의 실수에 대한 최대한의 서비스를 해줄 것을 촉구한 결과 소비자가 맘에 드는 69만2천원 상당의 옷으로 보상처리 하여 주었다.

■ 할부 계약한 가구 6일만에 최소 요청했으나 위약금 요구

내용 이옥경(대전시 서구 관저동) 씨는 2005년 2월에 있을 결혼예식을 앞두고 2004년 11월 25일 혼수용 가구 중 소파 217만원을 신용카드로 6개월 할부로 결제했다.

사정이 생겨 계약일로부터 6일 후 구입하기로 한 가구를 취소하려 했더니 위약금으로 결제금액의 10%인 20만원을 요구한다.

처리 할부거래법에 의거,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그 금액이 2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카드회사에 할부금의 지급거절의사를 통지한 후에 조건없이 철회할 수 있으므로 위약금 20만원 청구도 부당하므로 위약금 없이 계약철회 조치하였다.

■ 정액요금제로 신청한 전화요금, 동의없이 임의변경 한 후 과다부과

내용 김용주(경남 양산시 웅상읍) 씨는 집 전화요금제가 2002년 10월부터 시내요금 4천8백원과 시외요금 1만1천원의 정액요금제로 되어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요금이 예상외로 많이 나와 통신업체에 이의제기 하니 가족중 누군가가 요금변경제에 유선으로 승낙하였다고 한다. 그런 사실이 없으므로 시정을 요구하니 2년이 지나도록 내역을 확인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기존요금제로 전환해 주겠다는 말만 되풀이 할 뿐 전혀 시정이 안된다며 신고하였다.

처리 본회에서 요금변경을 유치한 담당직원과 확인 조회했으나 해명하지 못하여 부당성을 지적하고 차후 시정할 것을 건의하고, 2년 2개월간의 요금을 기존의 요금제로 환산하여 발생한 9만3천원을 청구인에게 환급처리 하였다.

■ 인터넷 국제 어학원 이중 납부된 요금, 환급 지연에 대한 구제 요청

내용 김성좌(경기도 안성시 가양동) 씨는 2004년 8월 23일 송광흠 국제어학원(인터넷)에 가입하고 일시불로 1년분 4만8천원을 무통장 입금 했는데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안된다면서 휴대폰으로 대금결제 요구하여 다시 알려 주었다. 후에 보니 요금이 휴대폰으로 연체료까지 인출, 이중으로 부과되었음을 알고 항의했더니 잘못된 것을 인식하고 3개월 후에 입금시켜 준다기에 기다렸으나 아직까지 입금이 되지 않았다고 신고하였다.

처리 접수 후 여러차례 종용하여 이중 입금된 것 중 5만1천원이 계좌입금처리(2005. 1. 24) 되었다.

■ 아파트 케이블방송 설치 계약 후 방송사의 사정으로 기간중 임의로 방송선로를 차단시켰다

내용 경북 구미시 구포동 28번지 구포 성원아파트 자치관리위원회에서는 이 아파트의 전세대는 (주)우리넷 방송과 케이블방송 설치 및 유지관리 계약을 하면서 각 세대당 월 시청료 1천1백원(부가세포함)으로 하여 2004년 4월 1일부터 2007년 3월 31일까지 계약체결하여 시청 중이었다.

2004년 10월 19일 (주)우리넷 방송이 (주)새로넷 방송과 구미시 동지역의 선로망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인수한 (주)새로넷 측은 아파트 주민의 동의없이 월 시청료 3천3백원을 요구하여 (주)우리넷 방송과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으므로 계약내용을 그대로 존속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주)새로넷 측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2004년 12월 23일자로 방송선로 차단으로 이에 부당함을 상담 신고하였다.

처리 본회에서 종합유선방송 공급계약서를 요구하여 확인한 바 계약기간이 2004년 4월 1일부터 2007년 3월 31일까지였으며 제5조 협정의 해지에 대한 조항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최소한 3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사업자간의 선로매매 계약을 정당한 해지사유라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기간까지 계약이행을 촉구하여 (주)우리넷 신호로 송출하여 줄 것을 건의 계약사항을 이행토록 합의 처리 하였다.

〈곽정자 / 본회 소비자상담실장〉

수입 디카 '정품' 인지 꼭 살피세요
… 일본내수품 무상AS 안돼

디지털 카메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국내 유통점에는 정식 판매법인이 유통시키는 '정품(正品)' 뿐만 아니라 일본 내수용으로 만들어진 제품의 유통도 늘고 있다.

이들 일본 내수품은 가격이 정품보다 5만~10만 원가량 싸지만 무상 수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일부 유통점에서는 한글사용 설명서 등을 별도로 첨가해 판매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글 설명서만으로 정품을 구별해 내기는 힘들다.

가장 정확한 구별법은 제품 본체와 상자 등에 있는 제품 일련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한 뒤 각 판매회사에 전화를 걸어 일련번호를 불러주고 정품인지 확인하는 것. 대부분의 회사가 정품 판매 확대를 위해 확인전화를 처리해 주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카메라를 작동시켰을 때 한글로 된 메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그러나 일부 제품의 경우 수출용에 한글이 포함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식 유통경로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한글메뉴는 있을 수 있다.

소비자 중에는 무상수리 혜택(통상 1~2년)이나 한글설명서 사용 등의 편리함은 포기하더라도 싼 가격 때문에 일본 내수품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또 유통점에서 일본 내수품이라고 미리 얘기를 하고 조금씩 싸게 파는 경우도 많다.

이들 일본 내수품의 애프터서비스는 대부분 정품을 판매하는 회사에서 유료로 받을 수 있다. 공식적으로 수리를 해주지 않는다고 밝힌 업체에서도 소비자들이 위탁 애프터서비스센터로 직접 찾아가서 수리하는 것을 막지는 않는다.

정품과 일본 내수품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때는 구입한 지 1, 2년 사이 제품 자체 결함으로 고장이 나는 경우다. 정품은 무상 수리되지만 일본 내수품은 돈을 내고 고쳐야 한다.

소비자 과실로 고장이 날 때는 보증기간이나 정품 여부와 상관없이 유료다. 〈동아일보 1.21〉

주공, 임대아파트 부담 낮춘다

대한주택공사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임대료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주공은 24일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보증금 등 임대료 인상주기를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바꾸고 전세환산이율(월세인 임대료를 전세 전환시 이율)도 연 12%에서 연 10%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2년마다 임대료를 인상할 때도 인상폭을 직전 2년 동안의 전국 주거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의 합산치를 넘지 못하도록 했으며, 이럴 경우 올해 임대료 상승분은 2.3% 수준이 될 것이라고 주공은 설명했다.

따라서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는 오는 6월 계약을 갱신하는 경기도 김포시 마송주공 16평형(임대보증금 1143만6000원, 월 임대료 6만4000원)의 경우 과거 5% 적용에 비해 2년간 임대보증금은 88만원,2년간 월임대료는 8만2000원씩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주공 관계자는 "그동안 임대료를 매년 일률적으로 5%씩 인상해 왔으나 임대료를 못 내는 입주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다 국회 등에서 임대료 운용 기준 개선 필요성을 제기해 임대료 인상주기 등을 조정했다"며 "새 임대료 운용 기준은 앞으로 계약 갱신이나 인상 시기가 도래하는 지구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1.25〉

'060' 불법 스팸 발송 사업자 번호 박탈

앞으로 휴대전화를 통해 '060'(전화결제) 스팸을 불법으로 발송하는 사업자는 번호를 잃게 된다. 또 단속된 불법 스팸 광고 발송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하고 필요할 경우 경찰 수사까지 받는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휴대폰 스팸을 근절하기 위해불법 스팸 발송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집중 단속 기간 중 정통부는 이통사의 060 음성정보업체의 번호관리에 대해 통신위원회 조사 등 강력한 대응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또 KT와 SK텔레콤 등 통신사의 이용약관을 개정해 불법으로 광고하는 060 사업자의 번호를 회수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기로 했다. 현재는 '불법으로 광고를 할 경우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애매하게 규정돼 있다.

오는 4월에는 전화 한통으로 휴대폰 스팸에서 벗어날 수 있다. 1336(지방의 경우 02-1336)번으로 전화하면 스팸을 알아서 차단해 주고 스팸 발송자를 처벌해주기 때문이다.

지금 현재에도 1336 신고전화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수신한 광고 내용을 사진으로 찍거나 음성의 경우 녹음을 해서 이를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3월 31일부터 전화로 신고만 하면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서 모든 과정을 알아서 처리해 준다.

3월 31일 이전에라도 휴대폰 스팸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 먼저 자신이 서비스 받고 있는 회사에 전화(휴대폰으로 국번없이 114)를 걸어 스팸차단서비스를 신청하는 게 좋다. 그러면 '060'이라는 발신번호로부터 수신되는 문자광고를 대부분 차단할 수 있다. 〈매일경제신문 1.24 〉

중고차 판매시 '30일 · 2천Km' 품질보증 의무화

앞으로 중고자동차도 판매후 일정기간동안 품질을 보증받을 수 있게 된다.건설교통부는 중고자동차시장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5일자로 공포·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5일부터는 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판매시 교부하는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의 내용에 대해 차량인수일 기준으로 30일간 또는 2000㎞ 그 내용을 보증토록 의무화했다.

또한, 올 8월 6일부터는 일정 시설과 객관적인 능력을 갖춘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검사소, 정비업체 및 중고자동차 진단전문 단체로 점검기관이 한정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그동안 매매시장에서는 사고차량이나 침수피해를 입은 자동차를 멀쩡한 것으로 기록한 점검기록부를 교부하는 등 허위 및 형식적인 점검으로 인한 소비자 분쟁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중고자동차도 품질을 법적으로 보증받게 돼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지 2.4〉

시판 브랜드 쌀 등급 못미덥다…92%가 특등급

지난해 할인점과 백화점 등에서 판매된 브랜드 쌀의 92%가 '특' 등급으로 표기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정부의 양곡관리기준을 적용했을 때 특 등급에 미달하는 쌀들이 상당수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돼 브랜드 쌀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지난해 서울지역 337개 매장에 진열된 2672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등급표시가 있는 2056개 제품 가운데 1898개(92%)가 '특' 등급으로 표시돼 있었다고 18일 밝혔다.

문은숙(文恩淑) 소비자시민모임 기획실장은 "등급은 권장표시 사항인 데다 생산자 임의대로 표기하도록 돼 있어 등급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이를 의무표시 사항으로 바꾸고 검증절차를 마련해 소비자의 선택을 도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시민모임이 조사표본을 전국 667개 매장 4289개 제품으로 늘려 실시한 조사에서도 679개(15.8%)가 품종 등 의무표시 규정을 어긴 채 소비자에게 팔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 1.19〉

생식제품 기준 까다로워진다 - 원료 80%이상 포함 … 건조방법 제한 등

최근 웰빙 바람을 타고 소비량이 급증하고 있는 생식 제품에 대해 생식원료가 80%이상 포함돼야 생식 제품으로 인정하는 등 처음으로 위생관리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며, 인정기준도 까다로워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6일 생식제품의 시장규모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위생적인 관리를 위한 규격이 미흡했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식품 기준 및 규격안을 입안예고 하고,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기준안 마련은 체중조절용이나 식사대용으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생식제품에서 대장균, 식중독균 등이 다량 검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생식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기준 규격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생식원료가 80% 이상 포함돼야 생식제품으로 인정되고 건조과정에서 영양소 파괴, 효소나 전분 등의 변질을 최소화하기위해 동결·자연건조, 섭씨 60도 이하 송풍건조 등으로 건조방법을 제한했다. 또 구토나 설사 등 식중독 증세를 일으키는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와 바실러스 세레우스 균도 각각 1g당 100마리, 1000마리 이하로 검출돼야 하며 대장균은 음성판정을 받아야 한다.

〈문화일보 1.26〉

의약품, 음성거래 · 가짜 판친다

"여드름치료제 '로아큐탄'을 처방전 없이 대량으로 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비만약은 어디서 구입할 수 있나요?", "'비아그라'를 처방전 없이 판매합니다"

이상은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의약품 관련 질문과 광고내용이다.

2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비아그라'나 '시알리스' 등의 발기부전치료제에 이어 유명 고혈압치료제까지 '가짜'가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의사의 처방이 반드시 필요한 전문의약품 관련 정보교환 및 물품거래가 인터넷상에 난무하고 있다.

특히 외국에 서버를 둔 일부 인터넷 사이트는 공공연히 전문의약품 판매사실을 공지한 채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으며 생활정보지 등에도 비아그라나 시알리스를 불법으로 판매하려는 광고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들 불법판매의 특징은 판매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휴대전화와 e-메일로만 거래를 한다는 것. 실제로 불법거래를 하다 적발되는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밀수입한 엉터리 발기부전치료제를 약국에서 버젓이 판매한 약사들이 120명씩이나 무더기로 적발돼 충격을 주기도 했다.

고혈압치료제 '노바스크'도 최근 가짜약이 발견된 뒤 또 다른 지역의 약국에서 가짜 노바스크가 추가로 거래됐다는 제보가 나와 해당 지역약사회가 실태파악에 나섰다.

노바스크는 진품인 경우 물에 넣으면 20여초 만에 풀어지지만 가짜는 10여분이 지나도 풀어지지 않아 일반 소비자들도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위궤양치료제 '잔탁'을 판매중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은 최근 가짜 약 조제공장이 경찰에 적발된 뒤 가짜 구별법에 대한 홍보방안을 마련하고 콜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복제가 어려운 포장 케이스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국로슈의 먹는 여드름치료제 '로아큐탄(아큐탄)'도 인터넷상에서 불법매매 문의가 많은 전문의약품 가운데 하나다. 특히 이 약은 가임기 여성의 경우 약을 잘못 복용하면 태아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등의 부작용 논란이 끊이지 않는데도 네트즌들 사이에 자의적인 정보교환이 늘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홈페이지에 '인터넷으로 이 약을 구입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1.26〉

콩 · 옥수수 GMO여부 공인검사 실시

콩, 옥수수 등의 식품에 대해 수입 및 유통 단계에서 재조합 유전자를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한 공인검사가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개정안'을 고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국내에 수입되는 콩이나 옥수수 등의 식품은 수입 단계에서 증명서를 제출해 재조합 유전자가 3% 이상 들어 있는 경우 'GMO(유전자조작) 식품' 표시를 명기토록 해왔다. 개정안은 이들 식품에 대해 지방 식약청과 보건환경연구원 및 공인 민간검사기관 등이 재조합 유전자 사용 여부를 수입 및 유통 단계에서 검증토록 하고 있다. 〈연합뉴스 2.1〉

단맛 나는 음료 취학전 아동 비만 유발

의학전문지 '소아과학' 2월호에 과일 맛이 첨가된 설탕물이든, 천연 사과주스든 간에 단맛이 나는 음료는 취학 전 아동을 비만에 처하게 할 위험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현재 미국 소아과학회는 취학전 아동의 하루 주스 섭취량을 120~180㎖로 제한하고 있다.

단 맛이 나는 음료는 칼로리가 높고 섬유소 함량이 적은데 영양학자들은 칼로리가 높고 섬유소가 적게 들어있는 음식은 빨리 소화되고 포만감을 덜 줘 과식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경고하고 있다. 〈제일경제 2.7〉

가정폭력범 48시간 격리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위원장 한명숙)는 31일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48시간 동안 접근하지 못하도록 경찰관이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담은 소년재판 및 가정폭력범죄처벌 특례법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법원안에 따르면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의 요구가 있거나 가정폭력범죄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 48시간 퇴거 또는 접근금지 시킬 수 있다. 이후 판사에게 '임시조치 결정'을 받으면 2개월까지 격리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가해자를 체포하지 않는 이상 '부부 간에 원만히 해결하라'는 조언밖에 못했다. 이혼할 때의 재산분할 비율은 50 대 50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기여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법원은 백지상태에서 양측 주장을 검토해 재산 비율을 정하지만, 앞으로는 2분의 1 원칙에서 주장을 검토해 조정한다. 보통 전업주부는 부부 공동재산의 30%, 맞벌이 주부는 50% 정도 인정받았다. 그리고 부부 가운데 한쪽이 자기 모든 재산을 처분하거나 함께 사는 주택을 처분할 경우 상대방 동의를 얻도록 했다. 전셋집에 사는 경우 보증금 채권도 상대방 동의를 얻어야 처분할 수 있고, 중요한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혼인 전 가진 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자기 재산으로 인정하는 부부별산제는 계속 유지된다.

소년범 연령 상한을 20세에서 19세로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19세 이상은 모두 성인으로 취급돼 형사 처벌을 받는다. 하한은 12세에서 10세로 낮췄다.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이나 보호처분이 불가능한 촉법 소년 범위가 10세 미만으로 강화되는 것이다.

한편 법원은 이번 방안을 오는 6월까지 대법원에 보고하고, 법무부나 국회의원을 통해 입법한다는 계획이다. 〈세계일보 1.31〉

헌재, 호주제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가 3일 민법상 호주제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전통 가족문화인가, 부당한 성차별인가'를 놓고 4년여간 치열하게 전개돼 온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 재판관)는 3일 호주제를 규정한 민법 778조와 781조 1항의 일부분, 862조 일부조항이 위헌인지를 가려달라는 법원의 위헌제청사건에 대해 재판관 9명중 6명의 의견으로 "해당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 선고했다.

▲ 민법개정안 국회통과 탄력 = 재판부는 "다만 위 법률조항들은 입법자가 호적법을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고 밝혀 향후 대법원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호적법 개정이 이뤄질 때까지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이에 따라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의 국회 통과 및 시행과 호적법등 각종 보완입법 추진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에서 "호주제는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로서 호주승계 순위, 혼인 시 신분관계 형성, 자녀의 신분관계 형성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남녀를 차별하는 제도"라고 밝혔다. 또 "이로 인해 많은 가족들이 현실생활과 가족의 복리에 맞는 법률적 가족관계를 형성하지 못해 여러모로 불편과 고통을 겪고 있다"며 "호주제는 혼인·가족 생활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에 관한 개인과 가족의 자율적 결정권을 존중하라는 헌법 36조 1항(혼인의 양성평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들 조항이 위헌이 되면 호주제가 존속하기 어렵고 신분관계를 공시, 증명하는 공적기록에 중대한 공백이 발생하므로 호주제를 전제하지 않는 새로운 호적체계로 호적법을 개정할 때까지 심판대상조항들을 잠정적으로 계속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영일, 권성, 김효종 재판관은 "현행법상의 호주제는 고대 이래 조선 중기까지 이어져 온 우리 고유의 합리적 부계혈통주의의 전통을 이어받아 부계혈통주의의 존립을 위한 극히 기본적인 요소 등만을 담고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 유림 "호주제 수호 투쟁 나설 것" = 헌재가 헌법불합치를 결정한 민법조항은 민법 제778조(일가의 계통을 계승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일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는 호주가 된다)와 제781조1항(아들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고 아버지 집안에 입적한다)등이다.

호주제 민법 조항의 위헌 심판은 2001년 4월 서울지법 북부지원과 서부지원이 이혼녀 양모씨 등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제청함으로써 심판대에 올랐고 작년까지 모두 8건의 위헌제청 사건이 헌재에 접수됐다. 헌재는 지난 2003년 이들 사건에 대한 첫 변론을 시작으로 지난해 12월까지 5번의 공개변론을 열고 위헌론과 합헌론 양쪽의 이해관계 기관(법무부, 여성부, 국가인권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성균관, 정통가족제도수호범국민연합회) 및 참고인 의견을 들었다.

공개변론에서 위헌론쪽은 "처의 부가 입적, 자의 부가 입적 및 남계 중심의 호주승계 원리를 내용으로 하는 호주제는 가족 내 뿐만 아니라 사회 전 영역에서 성차별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헌론쪽 참고인인 최재천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는 "생물학적인 족보는 암컷, 즉 여성 혈통만을 기록한다"며 "호주제와 같은 부계혈통주의는 생물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 생물학적으로도 호주제는 모순이라는 논지를 펴 주목을 받았다.

이날 헌재의 결정 직후 호주제 폐지를 반대해 온 성균관등 유림 인사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호주제가 폐지되면 오히려 여성들의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오는 15일 오후 3시 서울 종묘공원에서 호주제 수호를 위한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여성단체 쪽은 "여성인권을 위한 진일보한 판결"이라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매일경제 2.4〉

북한의 여성

〈양말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여성들〉

주말이면 우리는 가족과 함께 나들이를 가거나 맛있는 음식을 장만해 오순도순 사랑을 나누며 하루를 평온하고 행복하게 보낸다. 북한의 주민들도 우리의 모습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을까? 물론 가족간의 사랑도 있고 행복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언론매체를 통해 보는 북한 주민들의 모습은 경제난으로 굶주리고 힘들게 노동하는 여성들의 모습이다. 90년대 중반이후 배급이 중단되고 공장가동이 제대로 되지 않게 되자 북한여성들은 직장을 그만두고 가족의 먹을거리를 구하기 위해 가재도구를 팔거나, 농촌에 식량을 구하러 다닌다. 요즘에는 특히 농민시장에서 장사를 하면서 돈을 버는 경우가 많아 상인계층의 중요한 부문을 이루고 있다.

그동안 북한은 사회주의 건설에 있어 여성들의 역할을 강조해 왔다. 즉 남녀평등을 주장하면서 경제건설에 적극 나설 것을 독려했던 것이다. 그러나 남편의 직업이 권력층이거나 기업소 소장과 같은 특권층의 부인인 경우 어떠한 부담없이 직업을 가지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 북한에서 여성의 노동력 비율이 늘어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보다 북한이 여성의 노동계급화 정책을 펼치면서 여성들의 경제활동 보장을 위해 선차적인 과제로 탁아소, 유치원을 조직하고 어린 이들을 집단적으로 보육한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 사업은 어린이들을 공산주의 혁명의 미래 주인공으로 잘 키우는 것과 함께 여성들의 노동력 확보를 위한 지원정책이었던 것이다.

탁아소, 애육원, 보육원, 유치원은 취학 전 교육제도를 완비한 「어린이 보육교양법」의 제정으로 발전되었다. 북한은 1976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5기 6차 전원회의에서 탁아소, 보육원, 유치원의 취학 전 교육제도를 완비한 「어린이 보육교양법」을 제정하였다. 탁아소의 일일탁아소, 주탁아소, 월탁아소, 계절탁아소 등이 있다. 일일탁아소는 공장, 기업소, 농장 그리고 각 도의 2~300명 기준으로 운영하는데 매일 출퇴근하는 여성들이 이용하고 있다.

주탁아소와 원탁아소는 평양, 함흥, 청진 등 3개 도시에 2개 구역당 1개소가, 중소도기에는 2~3개소, 군단위에는 1~2개소가 있으며 자녀가 많거나, 병상, 정기적 파견, 연예인으로 지방을 순회하는 여성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임시탁아소나 계절탁아소는 농촌에서 농번기때 운영하고 있다. 여성들의 주로 취업하고 있는 피혁, 방적, 봉제사 등 경공업부문 생산직과 인민학교 교사, 교양원, 간호사들의 임금주준은 낮은 편이다.

이는 남녀평등의 실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성의 노동력을 생산현장에 보다 많이 투입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북한에서는 아직도 가부장제적인 성격이 강하게 남아 있어 가사노동 대부분 여성들의 도맡아 하고 있다.

결국 북한의 여성들은 북한당국이 선전하는 남녀평등의 권리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가사노동과 경제건설 노동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셈이다. ■

주부가 세상을 바꾼다

이젠 인터넷은 학생과 직장인의 전유물이 아니다. 인터넷은 생활인 것이다. 이제 주부도 인터넷을 통해 교양도 쌓고, 수다도 떨고, 때론 쏠쏠하게 부업도 하면서 새로운 인간관계와 다양한 정보를 얻어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할 수 있다. 여기에 여성들을 위한 인터넷 사이트를 소개하고자 한다. 지금부터 주부가 세상을 바꾸어보자.

▶ 취 · 창업, 교육, 봉사, 취미생활 등 다양한 정보 넘쳐난다

먼저 컴퓨터를 켜자. 생각만 하던 영어공부, 미뤄두었던 취미생활, 취업과 창업정보를 찾는 것이 안방에서 가능하다. 아마추어 작가와 가수의 꿈을 품은 사람들도 용기를 내보자.

▶ 온라인에선 뭐든지 배울 수 있다… 어학, 문학, 취미 강좌 풍부

다양한 온라인 교육과정을 개설해 인기를 끌고 있는 사이트가 많다. 전문자격증, 어학, 웹디자인, IT자격증, 조리사 과정, 글쓰기 강좌 등 그 종류도 다양하니 맘껏 골라보자.

서울여성교육포털(www.swedu.or.kr)은 최신 창업정보, 포토샵, 플래시, 제과 제빵, 요가, 세무회계 등 다양한 강좌가 개설되어 있다. 위민넷(www.women-net.net) 주부들에게 인기 높은 모니터 · 패널 · 리서치요원 교육과 모집 정보, 직업훈련 정보, 취 · 창업 무료교육, 자녀무료교육 등 온라인 교육이 인기다.

▶ 만만치 않은 아이 키우기… 육아, 초등학생 교육정보 가득

'다른 집 아이들은 이렇게 한다는데…' 들리는 얘기는 많지만 마음에 쏙 드는 정보는 없다. 엘레맘(www.elemom.com) 초등학교 학부모를 위한 곳이다. 일동맘(www.ildongmom.com) 임신 · 육아정보, 유아교육 등 유용한 정보가 있다.

▶ 이웃과 나누는 삶… 봉사, 절약, 환경 관련 활동

에코클럽(www.hgeco.net) '환경살림주부모 임'이 운 영되고 있다. 제대로 된 환경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사회참여의 보람도 느낄 수 있다.

▶ 잡지 보는 것도 온라인… 다양한 정보 가득한 웹진의 세계

가격도 만만치 않지만 대부분 광고로 채워진 잡지. 안보니 궁금하고 사자니 아깝다. 웹진 우리(www.woorizine.or.kr)/팟찌닷컴(www.patzzi.com) 등은 다양한 생활정보를 제공한다. 〈「서울사랑 05.2」에서 발췌〉

구분	사 이 트
무료 취 · 창업	**서울여성교육포털** www.swedu.or.kr **사이버주부대학(유료)** www.miz.co.kr **위민넷** www.women-net.net **위민피아** www.womenpia.com **서울여성재단** www.seoulwomen.or.kr **서부여성발전센터** superwoman.seoul.go.kr **북부여성발전센터** happywoman.seoul.go.kr **중부여성발전센터** goodwoman.seoul.go.kr **남부여성발전센터** nambuwomen.seoul.go.kr/nambu **동부여성발전센터** newwoman.seoul.go.kr
육아	**일동맘** www.ildongmom.com **엘레맘** www.elemom.com **서울시보육정보센터** children.seoul.go.kr/ **아동복지센터** child.seoul.go.kr/ **늘푸른여성지원센터** 1318.seoul.go.kr/
어학 문학 취미	**노래모임아줌마** cafe.daum.net/happysong **주부동호회 글사모** www.e-nara.com/jubu **포엠월드** www.poemworld.co.kr **아줌마닷컴** www.azoomma.com
봉사 절약 환경	**아름다운가게** www.beautifulstore.org **네이버나바다카페** cafe.naver.com/naverfleamarket.cafe **에코클럽** www.hgeco.net **고향주부모임** www.gohyangjubu.com
여성들을 위한 매체	**웹진 우리** www.woorizine.or.kr **팟찌닷컴** www.patzzi.com **주부나라** www.jubunala.com **주부닷컴** www.zubu.com **이메진** www.imagine.or.kr **일다** www.ildaro.com **이프** www.iftopia.com **여성신문** womennews.co.kr

생식제품

- 열 처리를 하지 않고 제조하므로 식품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

최근 웰빙 바람으로 연간 2,000억원에 달하는 시장 규모를 갖게 된 생식제품 일부에서 식중독균·대장균 등이 검출되어 구토나 설사 등 식중독 증세를 일으켜 건강을 위해 먹는 생식이 자칫 해가 될 수 있게 됨에 따라 정부가 생식제품 인정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정청은 생식원료가 80% 이상 포함돼야 생식제품으로 인정하는 등 처음으로 위생관리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고 인정기준도 까다로워져 그 기준안을 입안예고하고, 여론수렴 후 3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실시한 안전성 테스트 결과를 기본으로 생식제품에 대해 알아본다.

생식제품이란?

먼저 생식과 생식제품은 엄연히 다르다. 생식(生食)은 화식(火食)의 반대말로 논밭에서 곡물이나 채소를 수확한 뒤 열을 가하지 않고 그냥 먹는 것이다.

생식제품은 어·육류를 제외한 곡류·두류·야채류·과실류·해조류·버섯류 등의 식물성 원료를 가열 처리하지 않고 영하 40도에서 동결 건조해 수분을 뺀 것으로 분말화 해 일정 비율로 혼합한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다.

생식제품은 선식제품과도 구별된다. 선식제품은 미숫가루처럼 일단 가열해 익힌 뒤 가루를 낸 것이다.

생식제품은 현대인의 불규칙한 식사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성인병을 예방하고 낮은 칼로리로 체중 조절식·건강 증진 등에 이용된다. 열을 가하지 않고 바로 섭취하므로 식이섬유·비타민·미네랄·효소 등이 변성되거나 파괴되지 않은 상태의 천연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식은 열처리를 하지 않고 제조하므로 원료에 오염된 미생물이 제거되지 못한 채 최종 제품에 남아 식품 안전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또 생식의 특성상 섭취하는 이유가 건강을 목적으로 하고 복용 연령대 중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위생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

안전성 테스트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시판 생식 안전성 테스트 결과 바실러스 세레우스균과 대장균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었다.

바실러스 세레우스균(Bacillius cereus)은 대부분 흙·물·공기 중이나 식물에 널리 퍼져있는 사물기생 식중독균으로 식품에서 잘 번식하고, 일정 수 이상으로 오염된 식품을 섭취할 경우 장독소나 구토독소를 생산해 설사·구토 등의 식중독을 일으킨다.

대장균은 사람 및 동물의 장 속, 특히 대장에 많이 존재하는 세균으로 식품에서 이 균이 검출되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오염된 것을 말하며, 비위생적인 제품을 의미한다.

중량에서도 '식품 등의 표시기준'은 50g 이하 제품의 경우 실제량과 부족량의 허용 오차를 4%로 규정하고 있다. 40개 제품 중 3개 제품에서 부족량이 4%를 넘어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식제품의 장·단점

<장점>

- 열을 가하지 않아 영양소 손실이 적다.
-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
- 전곡(全穀)의 형태로 곡류를 섭취
- 먹기에 간편하다.

<단점>

- 열처리하지 않아 세균 오염 가능성이 있다.
- 섬유소가 많이 들어 있어 소화를 방해한다.
- 분말제품이어서 입맛에 잘 맞지 않아 기호성이 떨어진다.

개선방안

① 합리적인 미생물 규격 설정

소비자가 즐겨 찾는 제품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생식제품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기준규격이 설립돼야 하며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과학적 미생물 규정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② 위생적인 전문 시스템 개발 필요

다양한 종류의 농·수산물을 이용하는 생식제품의 특성상 원재료로부터 오염된 미생물을 원료 전처리 과정에서 위생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식제품은 열을 가하지 않고 생산하기 때문에 미생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원료전처리·동결건조·분쇄·혼합·포장 등의 전 과정에 위생적인 전문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생식제품이 입맛에 잘 맞지 않나요?
맛없는 생식제품 이렇게 드세요

생식제품은 일반적으로 하루 1~2회, 1회 1포(40g)를 약 200~250㎖의 물·우유·두유 등의 음료에 타서 흔든 다음 천천히 씹어 먹는 것이 좋으며 아침이나 저녁 식사대용으로 하는 것이 좋다. 화식에 길들여진 입맛에 생식은 맛이 없다. 그러므로 생식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의 경우 주 2~3회 정도로 가볍게 시작해 차츰 횟수를 늘려나가는 것이 좋다.

다음과 같이 생식을 맛있게 먹어보자.

- 생식을 밥 한 그릇으로 생각하고 식사할 때 반찬·국과 같이 먹는다.
- 바나나 복숭아 사과 딸기 등 제철 과일과 흑설탕 조금 그리고 좋아하는 음료를 혼합해 믹서로 갈아 먹는다.
- 각종 과일이 첨가된 요구르트에 부드러운 분말 형태의 생식을 넣고 먹는다.
- 우유나 미지근한 물에 부어 입맛에 맞게 흑설탕·꿀이나 소금 등을 가미해 간을 맞춘 후 좋아하는 과일이나 채소를 씹기 좋은 크기로 썰어 별도로 준비해 고추장 등에 찍어 먹는다. 〈「소비자시대」 2005. 2 참조〉

현금영수증 회원 가입 하셨나요?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투명하게 하고, 근로소득자와 자영사업자간 세부담의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한 현금영수증제가 올해부터 도입됐으나, 현금영수증 회원으로 가입한 소비자 수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소득공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많은 소비자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 누구나 현금영수증 회원 가입이 가능하며, 회원 가입을 원하는 경우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에 접속해 회원 가입을 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도 그것이 누구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회원 가입을 해야만 소득공제나 영수증 복권 당첨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현금영수증 제도 정착에 있어서 정부당국의 홍보와 국민들의 관심 부족을 지적했다.

현금영수증 제도란?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적립식카드, 신용카드 등), 핸드폰번호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은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건별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이다.

현금영수증 발행대상은 건당 5,000원 이상 현금 결제용이며,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기 위하여 사용 가능한 카드는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카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단, 카드번호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카드번호가 13개 이상 19개 이하의 숫자"로 구성된 카드로 제한하였다.

소비자에겐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

● 근로소득자 및 부양가족(배우자/청소년)의 경우

근로소득자이거나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20%를 연말 정산 시 5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현금영수증복권에 의해 보상금이 지급된다.

● 법인 및 개인사업자

사업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고, 접대비 인정을 받는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를 쓰는 게 유리한 것인지, 현금영수증 받는 게 유리한 걸까?

신용카드는 결제가 20일 이상 미뤄지고 사용액에 따른 POINT 혜택이 주어지는 이점이 있다. 따라서 기존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사용자는 이전과 똑같이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굳이 현금을 사용해서 현금영수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 단지, 이전에 금액이 소액이라 신용카드 쓰기 망설여졌던 식당, 슈퍼, 편의점 등에서 금액이 5000원을 넘어서면 현금영수증을 받는 게 도움이 된다.

현금영수증 발급시 주의사항 … 핸드폰번호 · 주민등록번호는 가능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자는 현금거래시 신용카드 또는 적립식카드를 제시하거나, 카드가 없을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핸드폰번호를 제공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이 때 주의 사항으로 핸드폰번호 · 주민등록번호는 점원이 수동으로 입력하는 관계로 오류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전자적으로 신원확인이 가능한 각종 카드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핸드폰번호 · 주민등록번호는 카드가 1장도 없는 예외적인 경우를 위하여 비상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현재 접수된 조회 중 조회가 안 되는 사용내역의 대부분이 핸드폰번호를 사용한 것이다.

또한, 동글이(핸드폰 단말기)에 핸드폰 쏘기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도 입력오류를 미리 방지하는 방법이다.

연말 정산 때 이것만 알아두세요.

소비자는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용자ID와 비밀번호 등록 후 자신의 현금결제내역을 확인하고, 연말정산용 소득공제 확인서를 직접 출력해 볼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 사용내역이 조회되는 것만 소득공제 대상이 되고 종이로 발행해 준다. 따라서 소비자는 현금영수증을 일일이 보관하지 않아도 결제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대상 · 범위

배우자가 사용한 현금영수증은 남편의 근로소득연말정산시 합산하여 소득공제할 수 있다. 또한 자녀가 사용한 현금영수증도 부모의 근로소득연말정산시 소득공제 가능하다. 단, 배우자 또는 자녀의 연간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합산대상이 아니다.

● 소득공제가 되는 기간

2005. 1. 1~2005. 11. 30 중 받은 현금영수증은 2006년 1월에 연말정산되며, 2005. 12. 1~2006. 11. 30 중 받은 현금영수증은 2007년 1월에 연말정산된다.

● 연말 소득공제가 안 되는 현금지출

▲ 의료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기타 보험료 또는 공제료 납입금액.

▲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정보사용료, 인터넷이용료, 아파트관리비, 시청료, 유선방송이용료, 고속도로통행료, 학교 및 보육원 등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자동차구입비, 상품권 구입비 등…

현금영수증제도 상담센타 전화번호 1544-2020, 인터넷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

금융거래! 아는 만큼 보인다

최근 과다한 가계부채의 증가, 신용카드의 남용 등 사회문제의
원인으로 올바른 개인신용 관리요령 및 금융거래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부족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금융분야별 이해를 돕기 위해 금융감독위원회 · 금융감독원은 「금융거래! 알고하면 유익합니다」라는
책자를 발간해 금융이용자 및 투자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하고, 건전한 신용사회를 구축하는 데 보탬이 되고자 했다.
이 달부터 기획으로 책자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 금융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1) 은행거래 시 살펴야 할 사항

은행 거래 시 예상치 못한 분쟁이나 피해를 당할 경우가 생겨날 수 있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거래 분야별로 유의해야할 몇 가지 주요사항을 정리해 보자.

■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할 경우

담보(보증) 서류에는 '포괄', '한정' 및 '특정'의 3가지 종류가 있으며, 종류에 따라 그 책임의 범위가 다르므로 담보(보증)의 종류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특히 '포괄' 및 '한정'의 경우에는 그 채무의 범위가 주채무자의 당해 은행에 대한 다른 채무에까지 미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 자필서명은 담보제공이나 보증내용을 반드시 확인한 후 해야 예상치 못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근저당권설정계약서나 근보증서 상의 차주, 금액(채권최고액, 보증한도), 근저당권 설정(보증)기간, 대출과목과 금액 등을 직접 확인한 후 공란 없이 자필로 기재하고 그 서류의 사본을 받아 두어야 한다.

■ 은행에 담보설정된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 매수인

담보 해지 시 상환하여야 할 채무합계액을 매매계약체결 전에 담보권자인 은행으로부터 확인하고 이를 서면으로 받아 주어야 확실하다.

• 매도인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담보관련 대출금의 채무자 명의를 변경하여야 추루 동 대출금이 연체 발생하더라고 이에 대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

(2) 예 · 적금 거래 시 살펴야 할 사항

■ 통장을 개설할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융거래는 반드시 본인의 실명으로 거래하여야 한다.

통장과 거래인감은 본인이 보관하되, 통장과 거래인감을 각각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안전하다. 비밀번호는 제3자가 쉽게 추정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하고, 제3자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예금을 입금하거나 인출할 경우

특히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할 경우에는 현금인출기에 비밀번호 입력 시 남의 시선이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만일 현금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은행 직원에게 연락하여 예금인출로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예금통장 등을 분실(도난)하였을 경우

예금통장, 인감 등을 분실(도난)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유선으로 은행에 신고하고 은행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신고 받은 직원의 이름, 신고시간 등을 기록해 두어야 한다.

현금카드를 분실(도난)하였을 경우에는 비밀번호뿐만 아니라 카드번호, 예금계좌도 변경하여야 안전하다.

(3) 어음(수표) 거래시 주의할 사항

■ 어음(수표)을 발행할 경우

발행금액의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액 기재란에 여백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작성해야 한다.

■ 어음(수표)을 받을 경우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어음(수표)번호, 지금(발행)은행 명, 금액 등을 기록해 두어야 한다.

- 어음(수포)발행 요건 구비 여부
- 상대방의 인적사항(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지급(발행)은행에 사고신고(분실, 도난, 피사취 등) 접수여부
- 가계수표의 장당 발행한도 초과 여부
- 금액 등의 정정 여부 및 정정한 경우 정정 부분에 발행인의 도장과 동일한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지 여부

수표는 발행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하여 금융회사에 지급 제시되면 "제시 기일경과'사유로 부도 처리 될 수 있으므로 수표를 수령할 때에는 발행일을 확인하고, 제시기일이 경과하기 전에 거래 금융회사에 입금 또는 지금 제시하여야 한다.

평일 타행발행 자기앞 수표를 결제 계좌에 입금하였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다음 영업일 14시 50분 이전에는 현금 인출할 수 없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자료 : 금융감독위원회 · 금육감독원 제공〉

당신의 하루

교자상 가득히 차려진 음식을 보고 다케시와 게이코 부부는 큰 눈을 뜬다. 스물 네 가지의 나물과 된장찌개 뚝배기랑 질그릇 솟밥은 우리 눈으로도 푸짐하다.

놀라면서 연신 맛있다고 오이시 오이시하며 딸의 친구인 일본인 부부는 김치며 매운 오징어볶음을 소담스럽게 먹는다. 무엇이나 조금씩 작은 그릇에 담는 일본인 식성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다.

세상은 많이 변했다. 전후파의 일본인 세대도 여러모로 우리나라 젊은 세대와 다르지 않은 것 같다.

바야흐로 글로벌시대.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진리 중의 하나는 이 세상의 모든 일에는 댓가가 따른다는 것이다. 선행에는 마음에 평화와 즐거움이 주어지고 악행에는 벌에 앞서서 스스로 받는 불만과 괴로움이 따르게 마련인 것처럼, 모든 인간관계도 다르지 않은 법이다.

지난 해 봄, 고베 여행 때 게이코부부의 친절한 안내와 보살핌에 대한 답례를 치르느라고 우리 모녀는 심신이 고단하다.

올 때마다 서울은 크게 변한다고, 꼭 세계의 빅시티 뉴욕에 온 것 같다고 늘씬한 독일 여자같은 게이코는 감탄과 경탄을 반복한다.

한정식 집에서처럼 그들은 남대문 시장과 동대문 시장, 명동에서도 우선 북적이는 사람들의 인파에 놀란다. 일본 여행사에서 만든 안내서엔 그 밖의 명동 칼국수와 대학로의 닭갈비집까지도 들어있었다.

〈겨울연가〉 붐 때문에 춘천과 남이섬에 관심을 보이면서도 그런 곳까지는 가볼 맘은 없다고 잘 웃는 다케시는 차분하게 고개를 흔든다. 게이코도 동의한다고 씩씩한 미소를 짓는다.

인사동에 위치한 어둑한 분위기의 전통 찻집에서 인삼차를 마시며 검소한 공무원인 다케시가 말한다.

한국이 일본의 삼사십대 여성들에게 욘사마 붐을 일으킬 만큼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발전한 국가라는 건 알고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 서울에서 보는 한국 여성들은 화려하고 옷을 잘 입는다. 남자들고 넥타이를 맨 정장차림이 많이 보인다.

역시 경제적인 발전인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국민성의 단정함인가?

그의 부드러운 어조의 질문에 순간 나는 당황하고 만다. 한국이 자기 나라의 식민지였다는 걸 모르지 않으리란 생각에 느낀 열등감은 아닐런지. 다음 순간, 그가 말하고 싶은 건, 한국인의 허세를 꼬집으려는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웃었다. 그들도 웃는다. 웃음은 신이 인간에게 준 가장 큰 선물임을 새삼 감사히 느끼며 인사동을 걷는다.

베이징과 타이페이, 홍콩에서 본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쓰잘데없는 물건들을 훑어보며 천천히 걷는다. 한국적인 기념품 쯤으로 얼른 눈에 띄는 건 태극마크가 든 작은 북이랑 영하의 날씨에 추위를 더하게 하는 태극선 정도였다.

커다란 가위소리를 내며 엿을 파는 남자의 옷은 국적불명의 중국옷도 아니고 한복의 저고리도 아닌 차림이었다. 한국적인 특색을 살린 기념품을 고르던 젊은 부부는 선물로 술이 달린 색동 주머니 몇 개를 샀다.

인사동 입구에서 서울 시티 투어버스를 타고 서울 시내를 한 바퀴 구경하고 난 후, 택시를 탔다. 한 칸짜리 전기기차를 타고 록복산에 올라 동화같은 고베의 야경을 감상한 답례로 석양의 남산을 안내하기로 한 것이다.

잔잔하고 아름다운 고베항의 크루즈대신 한강의 유람선과 고베에서 한 시간 거리인 아리마 온천까지 굳이 사양해도 데려가준 그들에게 내 고향인 이천 온천은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했다.

꼭 십년 전인 1995년의 대지진으로 고베시는 오천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완전 폐허가 되었었다. 그러나 어떻게 5년만에 도시 하나를 새롭게 탄생시켰는지 세계 각국에서 관광객이 온다고 한다.

창의성이 강한 일본인의 저력이란다고 벤처기업에 다니는 커리어우먼인 게이코는 예의바른 어조로 떠나는 인천 공항에서 자랑을 한다.

우리는 곧 일본에서 다시 만나자고 행복한 악수를 나누며 4박 5일의 빠듯하고 피곤한 작별을 하였다.

눈 잎이 흩날리네.

아무 생각 없이 한 한달쯤 겨울잠을 자고 싶다. 아무 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어디가 아픈 것도 아닌데 그냥 마음이 울적하다. 나가기도 싫고 매사가 귀찮기만 하니, 어쩌면 좋은가.

전화선 저편의 쉰 것같은 A의 음성은 듣는 사람의 기분까지 저하시킨다.

인생은 긴 마라톤이라고 했다가, 아니야. 도스토예프스키의 대하소설 같다고 A는 투정부리는 아이처럼 인생의 정의를 내리고 싶어 한다.

문득, "인간은 자기가 결심한 만큼 행복해진다"고 한 링컨 대통령의 말은 진리라고, 카네기가 강조했단다고 푹 쉬고 싶은 내가 말했다.

13세 때 스코틀랜드에서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온 카네기는 철도회사에 다니며 철강에 눈은 뜨고 마침내 철강 왕이 되었다. 대부호가 된 후에도 그는 근검절약했고 부단히 노력했다. 더 훌륭한 점은 화가 나면 하루를 참았다가 그 때도 화가 나면 화를 내라고 말했다는 그의 인품이다.

"그가 한 가장 훌륭한 말은 오늘만은 행복하게 지내자. 오늘만은 오늘 하루로써 유쾌하게 지내자. 어때, 이제 기분 좀 나아졌어?"

A는 아무 대답이 없다. 향 짙은 커피 잔을 들며 나는 혼자 말한다.

오늘은 오직 오늘 하루뿐이야. 어떤 누구도 되돌릴 수 없지. 흐르는 강물처럼. 〈김넝희 / 작가〉

숙명여대 국어국문학과 졸업했고, 1961년 현대문학 추천으로 단편소설 〈우기의 문〉을 발표하면서 등단했다. 장편소설 〈행복의 빈 상자〉(1975), 〈우리가 날개를 가졌을 때〉(1992), 〈창밖의 사과나무〉(2000)를 비롯해 창작집 〈고독한 축제〉(1968), 〈이브의 여로〉(1995), 수필집 〈내 영혼의 아침〉(1978), 콩트집 〈우리들의 이별〉 등 많은 작품을 출간했다. 한국소설문학상('87), 조연현문학상('89), 만우 박영준문학상('92), 국제펜문학상('00)을 수상했으며 국제 펜클럽 한국본부 이사, 한국문인협회 이사, 한국소설가협회 이사를 역임했다.

쾌적한 실내공기로 바꾸자

- 실내공기, 건강에 해로워 실내공기질 관리에 신경 써야 -

만물의 소생하는 봄이 온다하여도 사정상 외부에서 활동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일상생활 대부분을 실내에서 보내는 것이 현대인의 모습이다. 인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초미세먼지 오염도가 수도권에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더불어 이르면 내년부터 신축 아파트에 대해 '새집증후군'을 일으키는 건축자재를 쓸 수 없게 된다고 한다. 실내외 공기오염에 대한 안전지대가 없는 것이 현실문제로 다가온 것이다.

인간의 활동 영역 대부분이 환경오염에 노출되면서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정부는 근본적인 공기질 개선 대책 마련하고 추진해야 하고 국민들은 생활 속의 작은 환경 사랑 실천을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해야만 한다. 따라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환경 사랑으로 실내공기를 깨끗하고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실내공기의 중요성 … 현대인 하루 80%이상 실내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어

하루를 기준으로 할 때 사람이 코나 입으로 섭취하는 물질의 양이 확인되었는데, 총량을 100으로 할 때 공기가 83%, 음료나 물이 8%, 음식류가 7%, 기타 2%로 조사되었다.

하루의 80%를 이상을 다양한 실내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으므로 오염된 실내공기는 건물병증후군 등 여러 가지 건강장애를 유발할 수 있어 실내공기환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 건물병증후군란?

건물내 거주자들이 실내공기 오염으로 인하여 일시적 또는 만성적으로 걸리는 코, 눈, 목의 건조·통증, 재채기, 코막힘, 피로 또는 무기력, 두통, 구토, 건만증 등의 건강이상 증상

실내공기오염의 원인 … 휘발성유기화합물(VOCs)과 포름알데히드(HCHO) 등의 오염물질

신축하거나 개보수한 다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의 건축자재에서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과 포름알데히드(HCHO) 등 오염물질이 방출된다. 그 외 실내공기 오염물질에는 재실자로부터 방출되는 이산화탄소(CO_2), 담배연기, 연소기구나 난방장치 등에서 발생하는 연소가스 등이 있다.

실내공기질 관련 피해사례 … '새집증후군'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대표적인 사례로 '새집증후군'은 건물을 신축하거나 개보수할 때 사용하는 건축자재나 벽지 등에서 나오는 유해물질로 인해 눈이 따갑고, 목이 아프고, 두통, 아토피성 피부염, 천식 등의 질병이 일어나거나 악화되는 환경공해병이다.

< 실내공기요염물질별 발생원과 건강 위해성 >

오염물질	발 생 원	인 체 영 향
먼지	대기중의 먼지가 유입, 실내바닥의 먼지, 담배재	규폐증, 진폐증, 탄폐증 등
담배연기	담배, 궐연	두옹, 피로감, 기관지염, 폐렴, 기관지천식, 폐암, 초조감
연소가스	각종난로(연탄, 가스, 석유), 벽난로, 연료연소, 가스렌지	만성폐질환, 기도저항증가, 중추신경영향, 두통, 현기증, 시각장애
라 돈	콘크리트, 흙, 지하수, 화강암	폐암
포름알데히드	각종합판, 보드, 가구, 단열재,소취재, 담배연기, 화장품, 옷감, 실험실 등	눈 · 코 · 목 자극증상, 어지러움, 기침, 설사, 피부질환, 정서불안증, 기억력 상실 등
휘발성유기화합물	페인트, 착색제. 접착제, 세제, 살충제, 건축자재, 염료 등	피로감, 정신착란, 두통, 구역질, 현기증, 중추신경억제작용
석 면	단열재, 절연재, 석면차일, 방열재, 가정용품, 전기제품	피부질환, 호흡기질환, 석면증, 폐암
미생물성물질	가습기, 냉방장치, 냉장고, 애완동물, 세탁세제, 왁스, 방향제 등	피로감, 정신착란, 두통, 구역질, 현기증, 중추신경억제작용, 알레르기성질환, 홍역, 천연두
악 취	각종악취발생원	식욕감퇴, 구토, 불안, 알레르기증, 정신신경증 등
전자파	각종전자제품	식욕감퇴, 호르몬감소, 백혈병 등
기타(오존, 납)	복사기기, 생활용품, 연소기기	기침, 두통, 천식, 알레르기성질환

〈자료 : 김선태 / '실내공기오염 현황과 대책'〉

신축 공동주책 실내공기질 관리, 이렇게 해주세요

■ 입주 전 베이크 아웃(Bake-Out)을 실시하세요!

신축 아파트 입주 전이나 인테리어 시공 후, 빈 집 상태에서 보일러를 일정기간 높은 온도로 가동시켜 건축 자재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을 강제로 배출시킨다.

■ 환기를 잘 하세요!

- 외부의 공기가 충분히 들어오도록 창문은 열어 자주 환기한다.
- 새 카페트, 가구 등은 실외 공기를 충분히 쬐인 후 사용한다.
- 방향제, 방충제 등 화학원료로 만든 생활용품은 창문을 열어놓고 사용한다.

■ 청소를 잘 하세요!

- 청소는 환기가 잘되게 창문을 연 상태에서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물걸레질 위주로 한다.
-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내부를 매일 청소하고 깨끗한 물로 교환해 준다.

■ 유해물질 발생되는 행위를 하지 마세요!

-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 음식물쓰레기는 오래 두지 말고 즉시 처리한다.
- 다 읽은 신문은 실외에 둔다.
- 애완동물과 그 주변은 깨끗하게 유지한다.
- 연소기구 사용시에는 창문을 완전히 열어놓고 사용한다.

실내공기 깨끗하게 해주는 관상수!

음이온을 가장 많이 내뿜고 실내 공기의 질을 개선해 주는 산세베리아, 관음죽은 암모니아와 클로로포롬, 이산화탄소를 제거해줘 현관이나 거실 입구에 놓으면 좋다. 싱고니움은 녹색 잎이 많아 피로와 스트레스를 감소에 도움을 주므로 사무실에 배치하면 좋다. 대나무야자와 왜성대추나무야자는 거실에, 인도고무나무는 밝은 곳 또는 먼지가 많은 창가 쪽에 배치하면 좋다. 〈환경부 홍보자료 참조〉

색깔로 먹는다

- 블랙 푸드(Black Food) -

웰빙(참살이) 열풍이 우리 사회 전반에 자리 잡고 있다.
특정한 집단의 특별한 생활 방식이 아닌, 누구나 일상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생활의 한 방법이 되었다.
이런 '웰빙' 바람 중에서도 최대 관심사는 바로 건강이다. 오행론(五行論)의 원리에 따라 식품의 색깔이
우리 몸의 각 기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한다. 따라서 특정 부분이 허약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적합한 색깔 음식을 골라먹는 재미와 건강도 함께 지킬 수 있게 되었다.

음식문화에 색깔혁명이 일고 있다. 눈처럼 깨끗한 흰 쌀밥과 흰 설탕, 흰 밀가루 등 이른바 '삼백(三白)' 식품이 부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시대가 있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음식들은 당뇨병 등 성인병의 주범이 되고 말았다. 밥상 위에 흑색돌풍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신선이 먹는 음식" 신농본초경 등에 언급
대표적 물질인 '안토시아닌'의 황산화작용 현대과학으로 입증

한의학에서는 색과 오행과의 관계에 있어 검은 색이 신장을 이롭게 한다고 본다. 검은 음식은 햇볕을 흡수하여 스스로 열을 내는 색깔의 성질 때문에 우리 몸 안으로 들어와 위와 장을 따뜻하게 해준다. 즉, 위가 따뜻하면 소화 활동이 활발해지고 장이 따뜻해지면 변비 해소나 비만 방지 등의 효과가 있다. 또한 최근 연구에서는 검은 색깔을 만들어 내는 물에 잘 녹는 '안토시아닌'이라는 물질이 질병이나 노화를 일으키는 활성산소(유해산소)를 중화해낸다고 해 주목을 받고 있다.

신장 · 심장 · 노화방지에 좋아
신체 따뜻하게 해 변비 해소 · 비만 방지

식품영양학적으로도 검은 음식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폴리페놀이 들어 있어 노화방지와 심장 질환에 좋고, 혈관을 막히게 하는 혈소판을 제거하는 작용이 있어서 혈류를 개선, 원활하게 흐르도록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안토시아닌'을 섭취하면 면역력이 좋아져 각종 질병을 이겨낼 수 있고, 신장 기능 회복, 혈압 상승 억제, 간 기능 향상, 시력 향상 등의 효능은 물론, 혈액순환과 장의 활동을 원활하게 해줘 노폐물이나 지방, 콜레스테롤을 흡착 몸 밖으로 배출하여 변비해소, 비만 방지, 노화 방지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검은 식품의 종류와 그 효과

검은 쌀(흑미)
소화 돕고, 신장 기능 좋게 해

장수미, 보혈미, 약미 등으로 불려온 검은 쌀만으로 밥을 지어먹으면 까칠까칠해 먹기가 어렵다. 흰 쌀에 검은 쌀을 한 움큼(10%)만 섞어 밥을 지어먹으면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하다. 단, 쌀을 오랫동안 물에 불려 놓는 건 금물이다. 물에 잘 녹는 안토시아닌이 모두 물에 녹아 없어지기 때문이다.

검은 쌀은 흰 쌀보다 단백질, 지방, 비타민 B1 · B2, 무기질, 아미노산이 풍부해 노화방지와 빈혈 및 변비 예방에 효과적이다. 또한 검은 쌀을 즐겨 먹으면 면역력의 향상으로 감기나 각종 알레르기 질환에도 도움이 된다.

검은 콩
시력 회복과 해독 효과에 탁월

눈에 좋은 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는 것이 블루베리다. 안토시아닌 성분이 많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안토시아닌 함유량을 비교하면 검은 콩에 블루베리보다 황산화작용이 강한 시아니딘 3글루코시드 성분이 3배 이상 더 많다고 한다.

또한 검은콩은 사포닌과 아이소플라본 그리고 성인병 예방이나 비만 방지에 효과적인 검은 색소 델피니딘이란 성분이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사포닌 성분은 말초혈관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어 냉증, 불안초조, 골다공증 등의 증상을 예방해주고, 아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과 매우 유사한 작용을 하는 물질로 유방암 · 전립선암 예방, 갱년기 장애 증상 완화, 골다공증 개선에 도움이 된다.

특히, 검은콩은 예로부터 해독제로 알려졌는데, 동의보감엔 독극물을 잘못 먹고 중독증상을 일으켰을 때 콩이나 콩깍지를 달여서 먹이면 해독 효과가 있으며, 소금을 넣어 함께 삶아 먹으면 신장을 보호하는데 좋다고 기술되어 있다.

검은 깨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새치 막아줘

검은깨는 신라의 화랑들이 수련할 때 즐겨 먹었던 식품이라고 한다. 뼈를 튼튼하게 하고 오장의 기능을 원활하게 해주므로 수술 받은 환자에게 흔히 검은깨 죽을 먹인다.

검은깨에 많이 들어있는 리놀산과 리놀렌산 등 불포화지방산은 혈류를 원활하게 하고 비타민 E가 말초혈관의 혈류를 촉진하여 신진대사가 잘 되도록 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도 떨어뜨려준다. 또한 검은깨의 단백질은 모발의 주성분인 케라틴 원료로, 두피에 영양을 주어 모발이 많이 빠지거나 하얗게 쇠는 증상을 막아주고 머리털에 윤기가 나게 한다. 〈식품음료신문 05. 1. 24 참조〉

식탁에 봄이 왔어요!

동장군이 물러난 후 추위에 익숙해져 있던 우리의 신체가 따뜻한 봄기운에
적응하지 못해 나른해지고 입맛도 없어지고 잠만 오죠. 가족들이 춘곤증에 힘들어하시나요?
겨울내 운동부족과 피로, 편식 등으로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이 부족한 계절이 봄이래요.
오늘 저녁 칼로리가 높은 식사보다는 소화가 잘 되는 봄 생선(산치, 광어)으로 단백질을 보충해주고
비타민과 무기질을 보충할 수 있는 봄나물을 마련해 사랑스러운 가족에게 봄소식을 전하며 춘곤증을 없애주세요.

쑥완자탕

재료> 쇠고기 100g, 두부 1/4모, 쑥 100g, 간장 1큰술, 다진파 1큰술, 다진 마늘 1/2큰술, 깨소금 약간, 참기름 약간, 후춧가루 약간, 된장 2큰술, 굵은파 1/2대, 보리새우 또는 멸치 10g

<만드는 법>

① 쑥은 씻어 다듬어 둔다.

② 쇠고기는 잘게 다지고 두부는 칼등으로 으깨어 둔다.

③ 보리새우 또는 멸치는 끓는 물에 푹 삶아 구수한 육수를 준비한다.

④ 굵은 파의 일부는 다지고 일부는 어슷하게 썬다.

⑤ 볼에 다진 쇠고기와 다진 쑥과 양파, 밀가루, 달걀, 소금을 넣고 끈기있게 치댄 후 완자를 만들어 달군 팬에 참기름을 두르고 돌돌 굴려가며 살짝 익힌다.

⑥ ③의 냄비에 된장을 풀고 끓으면 완자를 넣고 끓이다 쑥을 넣고 부드럽게 끓인다.

⑦ ⑥에 어슷썬 굵은 파와 부족한 간을 소금으로 맞추고 그릇에 담아낸다.

달래해물전

재료> 달래 100g, 실파 100g, 붉은고추 2개, 굴 300g, 홍합 300g, 새우 300g, 조갯살 300g, 밀가루 2컵, 찹쌀가루 1/2컵, 달걀 1개, 소금 약간

※ 소스 및 양념장 재료: 간장 1큰술, 식초 적당량, 물 적당량, 실파 적당량, 고추가루적당량, 깨소금 적당량

<만드는 법>

① 달래는 깨끗이 씻어 4cm 길이로 썰고 실파도 다듬어 같은 길이로 썬다.

② 소금물에 준비한 해물류를 씻어 건져둔다.

③ 붉은 고추는 4cm 길이로 썰거나 둥글게 썬다.

④ 볼에 준비한 밀가루와 찹쌀가루, 달걀, 소금을 넣고 잘 섞어 반죽한다.

⑤ 달구어진 팬에 반죽을 한 수저 놓고 위에 준비한 달래와 실파를 놓고 반죽을 다시 살 짝 올린 후 해물류를 올리고 반죽을 끼얹어 앞뒤로 노릇하게 지진다.

⑥ 간장, 식초, 물 1 큰술씩과 고춧가루, 실파 송송 썬 것, 깨소금을 조금 넣고 잘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 ⑤와 함께 곁들인다.

봄동겉절이

재 료 > 봄 동 200g, 부추 50g, 오이 1개, 붉은고추 1개, 소스 및 양념재료: 간장 2큰술, 물 1큰술, 소금과 식초 2큰술씩, 고춧가루 2큰술, 참기름 1큰술, 깨소금 1큰술

<만드는 법>

① 봄동은 알맞은 크기로 손으로 뚝뚝 자른 뒤 차가운물에 담가두어서 싱싱하게 한다.

② 부추는 깨끗하게 손질을 해서 씻어 건진 후 5cm 길이로 자른다.

③ 오이는 소금으로 문질러 씻은 후 둥글게 썬다.

④ 분량의 양념을 넣어 양념장을 만든다.

⑤ 물기를 뺀 봄동을 그릇에 담고 나머지 야채를 넣고 양념장을 끼얹어 가볍게 버무린다.

무우삼치겨자구이

재료> 삼치 2마리, 무 1/6개, 실파 50g, 소금 약간

※ 겨자초장 : 연겨자 3큰술, 설탕 2큰술, 간장 · 맛술 1큰술씩, 물엿, 마늘, 참기름, 후춧가루 약간씩

<만드는 법>

① 삼치는 내장을 제거하고 포를 떠서 껍질 쪽에 칼집을 넣는다.

② 손질한 삼치에 소금을 조금 뿌려 놓는다.

③ 무는 강판에 갈아서 즙을 약간 짜서 건지를 준비해 놓는다.

④ 겨자초장을 만든다.

⑤ 소금 뿌린 삼치를 씻어 물기를 제거하고 석쇠에 올려 굽는다. 석쇠에 들러붙지 않도록 석쇠에 올리브 오일을 약간 바르거나, 불 조절을 잘해야 한다.

⑥ ⑤의 삼치가 반쯤 익으면 겨자초장을 발라가며 굽고 노르스름한 색과 맛이 적당히 베면 접시에 담는다.

⑦ 무건지를 얹어 먹는다.

※ 그릴이 있는 경우는 석쇠 대신 그릴을 사용하여도 된다.

우울증은 병, 꼭 치료받아야 하는 질환

우리 나라를 방문한 우울증 연구와 치료의 세계적 권위자인 노먼 사토리우스(71 · 미국 존스홉킨스대 보건대학원 교수) 박사는 우울증은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는 '뇌의 질환'이므로 배 아프면 내과에 가듯 우울증이다 싶으면 정신과를 찾아야 하는데 특히, 아시아 지역에선 우울증이 병이란 생각을 안 하고 숨기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우울증에 대한 인식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우울증인 줄도 모르고 혼자 괴로워하다가 자살에까지 이르는 최악의 결과를 낳지 않으려면 우선 의사를 찾아오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요즘 나른한 봄기운에 피로감과 우울한 기분이 느껴진다면 우울증 자가진단을 통해 이를 극복해 보자.

우울증 자가진단

① 사소한 일에 신경 쓰이고 걱정거리가 많다.
② 쉽게 피곤해진다.
③ 의욕이 떨어지고 만사가 귀찮다.
④ 즐거운 일이 없고 세상일이 재미가 없다.
⑤ 매사 비관적이고 절망스럽다.
⑥ 내 처지가 초라하고 죄의식에 사로잡힌다.
⑦ 잠을 설치고 수면 중 자주 깬다.
⑧ 입맛이 없고 한달 사이 체중이 5% 이상 변한다.
⑨ 답답하고 불안하며 쉽게 짜증이 난다.
⑩ 집중력이 떨어지고 건망증이 늘어난다.
⑪ 죽고 싶은 생각이 자주 든다.
⑫ 두통, 소화기장애, 만성통증 등 신경성 신체 증상이 계속된다.

이 중 3~5개는 가벼운 우울증, 6개 이상은 심한 우울증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될 경우 및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있거나 절망적이라고 느껴질 경우에는 전문의와 상담해야만 한다.

우울증을 극복하는 길

1. 말없이 참지 않는다.

우울한 사람은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이 더 나은 삶을 위한 첫 번째 해야 할 일이다.

2. 스트레스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

스트레스를 풀려는 것 보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더 현명한 일이다. 규칙적인 생활과 활동을 하고 균형 잡힌 식습관을 갖고, 운동을 한다면 우리의 정서적인 저항력도 강해질 것이다.

3. 즐거운 생각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울하게 느끼는 사람은 한결같이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을 본다. 남을 비판하거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비난을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려는 노력과 즐거운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한다.

4.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누군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아무리 심한 정신적인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도 친밀한 관계 속에서는 안정을 찾는다. 만약 그런 사람이 없다면, 우울증을 이해하는 사람들끼리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은 우울증에 다시 걸리는 것을 방지해준다.

5. 자신의 기분을 좋게 하는 활동에 참가한다.

운동, 영화, 종교, 사회활동 등 어떠한 것도 좋으나 너무 무리하거나 즉시 기분이 좋아지지 않는다고 초조해 할 필요는 없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한다.

6. 치료약 복용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심한 우울증 뿐만 아니라, 경미한 우울증에도 항우울제는 효과가 있다.

우울증은 혼자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병이 아니고, 항우울제는 중독이 되지 않으므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을 꾸준히 복용해야만 한다.

〈자료제공 : 서울시 정신보건네트〉

한국의 독특한 '방' 문화 … 찜질방

연말연시 각종 모임장소로 찜질방이 인기를 얻었고, 지난 설 선물에 저렴한 가격으로 인기를 끌었던 상품 중 하나가 바로 찜질방 이용권이었다고 한다.

삶의 지친 심신을 편안하게 쉬게 해 주고 싶을 때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곳으로 찜질방을 떠올리는 사람의 수가 점차 늘어가고 있다.

건강과 문화적 욕구 동시에 충족…복합레저시설로서 인기

최근 이곳이 단순히 땀을 빼며 쉬는 공간이란 개념을 넘어서 헬스 · 요가 · 에어로빅 등 건강 관련 시설에서부터 서예 · 노래강습 등 문화강좌를 개최하는 복합레저시설로 변하고 있다. 분명 찜질방은 우리나라의 독특한 문화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음이다.

'방(房) 문화'의 전형적 모습이 옛 선조들의 '사랑방'이라고 한다면, 90년대에는 노래방 · 비디오방 · PC방 그리고 21C 첫 출발에는 찜질방인 것이다.

친교집단 간 내밀한 의사소통이라는 '방'의 본질적 기능에는 차이가 없지만, 유독 남녀노소 구분 없이 찜질방을 많은 사람들이 찾는 것은 나름대로 이전의 방 문화와 다른 매력이 있기 때문이다.

먼저, 90년대의 방 문화는 낯선 타인들과는 차단된 공간 개념이라면 찜질방은 공간이 넓고 타인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열려있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이웃 사람들이 모여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눴던 사랑방과 같이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자유롭고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며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찜질방이다. 가격면에서도 이용료가 저렴해 시민들의 만남의 장소로 각광받고 있다.

이제 찜질방은 옛 선조의 사랑방 역할과 현대인의 건강과 문화적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켜주는 다양한 역할을 소화하는 21C를 대표하는 '방 문화'를 보여주고 있다.

질병치료 효과 아직 의학적으로 검증 안 돼
찜질방 이용자는 자신의 체질과 건강사태 꼼꼼히 따져 봐야
찜질방 안전사각지대…공기 더럽고 화재에 위험 커
탈선의 장소로 악용돼

한편, 찜질방 내 풍기문란한 행위, 가출 아이들의 비행모의 등 탈선의 공간으로 악용되고 있고,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명분으로 생겨난 찜질방의 실내공기가 건강을 해칠 정도로 오염되어 있으며 지하에 설치된 경우 화재에 취약해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온열자극에 의한 신진대사 및 혈액순환을 촉진해 피부를 좋게 하고 근육통을 완화시켜주지만, 고혈압을 앓거나 열이 많은 사람이 장기간 찜질방을 이용할 경우 심장마비 또는 뇌 쇼크의 원인이 되기도 해 주의해야 한다.

찜질방이 시민들의 건전한 휴식공간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정부와 찜질방 영업주의 철저한 위생관리 · 검사와 더불어 찜질방 이용자의 수준 높은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

3월 봄나들이 가자~

봄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곳

해국의 풍광을 따라 – 거제 지심도

● 위 치 :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 지심도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섬의 모습이 마음 심(心) 자를 닮았다고 이름 붙여진 지심도(只心島)는 섬 전체가 동백나무로 뒤덮여져 있어, 동백섬으로도 불려지고 있다.

지심도 동백 숲 산책길은 동백나무들이 산책길 위로 터널을 형성하고 있어 장관을 이룬다. 동백꽃은 겨울에 피는 꽃으로 유명한데, 지심도에서는 3월초부터 중순까지 피크를 이룬다. 조매화(鳥媒花)동백꽃의 수분을 돕는 동박새의 재잘거리는 소리로, 동백섬 지심도의 여행이 더욱 정겨워진다. 동백나무의 반짝거리는 짙은 녹색 잎사귀는 수십 년, 수 백년 동안의 매서운 해풍으로부터 이겨내 온 섬 나무의 힘을 느끼게 한다.

▶문 의 : 거제시 관광안내소(055-639-3399)

▶위 치 :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 지심도

남한강 따라가는 폐사지 여행

● 위 치 :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거돈사지, 법천사지)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신륵사, 고달사지)

봄이 찾아오는 길목인 3월에는 복잡한 일상 속에서 잠시 탈출, 잘 알려지지 않은 고요하고 한적한 곳으로의 여행은 어떨까. 남한강을 따라 강원도 원주, 경기도 여주와 충북 충주 일대에는 인적이 드문 폐사지들이 많이 있다. 주제가 있고 사색이 있는 여행을 원한다면, 폐사지 여행은 선조들의 과거 역사와 지혜의 숨결을 경험하고,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원주에는 거돈사지, 법천사지, 흥법사지를 비롯한 많은 절터가 산재해 있으며, 이곳에서 가까운 여주군에는 고달사지가, 충주시 소태면에는 청룡사지가 있다. 이들 절터에는 국보급 유물들이 아직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 옛날 대사찰의 흥망성쇠를 엿보며 역사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것도 좋겠다.

▶문의 : 원주시청 문화체육과(033-741-2721) / 여주군청 문화관광과(031-741-2544)

봄바람 가득한 강진만 바다 기행

● 위 치 : 전라남도 강진군 일원

3월 강진만 바다에 봄바람이 불 때면 산, 바다, 들 산천초목에 꽃내음 물씬 스며들기 시작한다. 정약용 님의 다산초당과 그 이웃한 산해절승(山海絶勝)의 동백향 흐드러진 백련사, 그리고 또 시인 김영랑의 유허지가 있는 강진에는 시대를 풍미한 옛 문인들의 향기가 아련하며, 산, 들, 강, 바다 너나할 것 없이 조화롭게 어우러진다.

칠량, 대구, 마량으로 이어지는 해안도로 따라 나서는 강진만 바다기행, 여기에 옛 고려청자 도요지와 산중고찰 정수사의 고즈넉한 풍광, 이어 강진 땅 최남단의 마량포구 까막섬에 이르기까지 3월 춘풍(春風) 더할 나위 없는 남도제일 강진기행의 참맛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문 의 : 강진군청 문화관광과(061-430-3223)

〈출처: 한국관광공사〉

지부소식

전국 16개 시 · 도 지부 234개 시 · 군 · 구 지회

서울특별시지부

보건소에서 무료배식 봉사활동

강남지회

사회에서 소외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해 백일장 개최, 백화점 알뜰상품 판매활동 등을 전개해 온 강남지회는 2월 4일 강남구보건소 무료배식소를 방문해 무료급식 봉사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 나눔을 실천할 수 있었다.

부산광역시지부

과소비 추방과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 캠페인

시지부

매해 최대 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명절성수품의 가격 상승과 더불어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개인서비스 요금 등의 부당인상 등으로 가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이런 사회 불안요소를 합리적으로 해소하기위한 물가관리와 합리적인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1월 12일 부산역 광장 앞에서 회원들이 검소한 명절 보내기를 비롯해 근본적인 과소비 추방 캠페인을 전개했다.

더불어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가장 먼저 그 영향을 받는 주부들에게 분리 배출 기준을 명확히 알려주고, 부산역 주변 음식점들을 방문, 전단지를 배포하면서 조속한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 습관을 정착하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했다.

대구광역시지부

<좋은 부부, 좋은 자녀 관계>에 대한 강좌

시지부

사회의 가장 기초가 되는 단위는 가정이다. 건전한 가정이 토대가 되어야 건전한 사회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서울 강남구지회 : 어려운 이웃돕기 무료배식 봉사활동〉

그 가정의 구성원은 바로 부부와 그 자녀들이다. 따라서 시지부는 지난 1월 7일 중앙도서관 지하 강당에서 월례 이사회를 개최하고 참가 이사들과 회원 30명을 대상으로 교양강좌의 시간을 가졌다.

경북대 심리학과 조현춘 교수를 초빙해 가족행복 쌓기의 노하우인 〈좋은 부부, 좋은 자녀 관계〉에 대한 강좌 내용을 들었다.

사랑의 개념과 결혼 후 행복한 부부가 되는 방법을 제시하고, 양가 가족관계와 부부관계의 비결 등을 소개하였다. 좋은 부모란 좋은 남편과 좋은 아내이고 무엇보다도 서로 존중하고 사랑을 나누는 부부관계가 자녀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녀교육의 방법임을 강조했다.

교수의 이론과 상담사례를 통해 터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강좌 내용을 듣고 가족해체 위기론이 대두되는 현대 사회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족의 의미와 소중함을 되새겨 보게 한 뜻 깊은 시간이었다.

인천광역시지부

농수산물 검역 참관

시지부

식품안전과 농수산물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시민단체를 대표해 남동구 회장 외 4명이 농수산물 검역요원으로 위촉돼 지난 1월 17일 연안부두에서 농수산물의 신선도 검사와 더불어 수입농수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 및 감시 활동을 전개했다.

명예위생식품감시원 위촉

연수구지회

지난 25일~27일에 연수구지회 회원들이 연수구청 환경위생과로부터 식품명예감시원으로 위촉되어 관내 배치된 자판기와 음식점의 위생관련 감시활동을 전개했다.

사회 소외계층에게 사랑 나눔 실천 캠페인

남동구지회, 서구지회, 부평구지회, 계양구지회

사회로부터 소외 받는 불우한 이웃에게 훈훈한 이웃의 정을 나누고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지며 삶의 희망을 갖도록 격려하고자 각 지회가 사랑 나눔 실천 캠페인을 전개했다.

남동구지회는 지난 1월 11일 관내 위치한 장애인 자립장을 회원 20명이 찾아가 장애인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을 찾아 일손에 보탬이 되었다. 18일엔 소년 소녀 가장 2가구에게 케익을 전달했고, 22일엔 깨끗한 장미의 거리를 만들고자 회원 15명이 청소를 했다.

서구지회는 지난 10일 노인복지회관을 방문해 외로운 말년은 보내시는 노인분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면서 담소를 나누었다. 15일에는 서구여성 협의회가 주최하는 불우이웃돕기 기금마련 떡 판매에 동참했다.

부평구지회는 지난 17일에 회원 10명이 관내에 홀로 어렵게 살아가고 계시는 노인분들을 찾아가 어려운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어드리고자 밑반찬을 전했다.

계양구지회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매달 2회 회원 10명이 노인복지회관을 찾아가 중식제공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광주광역시지부

식품 명예감시원 활동

시지부

지난 1월 18일 상무지구 이마트 앞에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목포지원으로부터 안길자 친목회장과 장복희 부회장이 수산물 명예감시위원으로 위촉되어 수입수산물에 대한 국산 둔갑판매 단속활동에 참여했고, 18~19일 양일간 남구 아파트주변 대형 상가 일대에서 남구청으로부터 식품명예감시원으로 위촉된 회원 2명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식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식품 유통기한 단속 활동을 벌였다.

대전광역시지부

대전 · 충남 물가감시센터 실무자 협의회

시지부

지난 1월 25일 대전주부교실 1층 회의실에서 물가 안정과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가계운영을 위해 해마다 전개하는 물가감시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물가감시센터 실무자가 한자리에 모여 1년간 전개할 각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며 실천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울산광역시지부

여성단체장, 검찰청 견학

시지부

지난 1월 13일 울산지방 검찰청이 울산지역에 있는 여성단체를 대상으로 검찰청 내 견학을 요청해 회원 1명이 대표로 참석했다.

여성 관련 범죄와 현재 문제시되고 있는 성매매 관련법과 같은 여성문제를 처리함에 있어 검찰청과 여성단체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함을 재인식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더불어 시민과 거리감이 있었던 기존의 검찰청 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었다.

설 대비 지방물가대책 회의 참석과 물가조사 활동

시지부

고유 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개인 서비스 요금에 대한 불공정 상거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 26일 시청 3층 상황실에서 열린 설 대비 지방물가대책 회의에 회원 1명이 대표로 참석했다. 2월 2일에는 매해 설 분위기에 휩쓸려 찾아오는 물가상승이 가계의 부담이 되므로 모니터 5명이 물가조사를 실시하여 물가 관리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무료 한글 · 수학 교실 운영 및 그린여성자전거교실 운영

시지부

시지부는 꾸준히 펼쳐오는 교육 사업의 하나로 형편이 여의치 못해 배움의 뜻을 접어야 했던 울산지역 어르신 50명을 대상으로 매주 월 · 수요일, 주부교실 문화 교실반에서 무료로 한글과 수학을 교과서 중심으로 3반으로 편성해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에너지절약을 위한 사업의 하나로 꾸준히 펼치고 있는 그린여성자건거교실이 매주 월~금, 울산대공원 동문에서 주부회원 30명을 대상으로 건강증진 및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이론 교육 및 실기 교육을 실시해 울산지역 주부들의 큰 호응을 받으며 운영하고 있다.

〈대전시지부 : 물가감시센터 실무자협의회〉

〈경기 수원시지회 : 물가안정캠페인〉

경기도지부

물가 모니터 워크샵

도지부

지난 1월 10일 도지부에서는 물가 안정을 위해 일익을 담당하는 물가 모니터 30명과 함께 가평에 위치한 '현대 문화 도예원'에서 워크샵을 통해 물가 관리 요령을 배우고, 모니터들의 고충 사항과 그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단합의 시간을 가졌다.

물가 안정 캠페인 실시와 축산물 명예 감시 활동

수원시지회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설제수용품을 비롯한 물건들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의 소비성향이 강해짐에 따라 물가가 전반적으로 오름세를 보여 물가 안정과 올바른 소비 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1월 31일 물가 모니터 및 회원 70명이 수원역사 애경 백화점 앞에서 물가 안정 캠페인을 전개했다.

'설 문화 안정시켜 즐거운 명절을 맞이합시다'라는 주제로 피켓을 준비, 전단지를 배포하며 가두 캠페인을 펼쳐 시민들에게 물가 안정 정책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축산물 유통 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부정 유통의 근절을 막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 제공을 위해 지난 1월 25~28일까지 4일 동안 축산물 명예감시원으로 위촉된 회원들이 시청 공무원들과 함께 관내 축산물 판매업소를 방문해 판매장 청결 상태 및 등급별, 부위별 판매 여부, 종업원 건강 진단 실시 여부 등을 확인하고 전반적인 위생 상태 등을 확인하는 감시 활동을 전개했다.

'사랑의 동전 모으기' 행사와 '체육 꿈나무 돕기' 벼룩시장 개최

안양지회

안양지회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안양시 노인복지센타에 계신 노인분들과 함께 회원 10명이 지난 1월 7일 의왕톨게이트에서 '사랑의 동전 모으기' 행사를 전개했고, 1월 23일에는 안양실내체육관에서 '체육 꿈나무 돕기' 행사의 일환으로 벼룩시장을 개최해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운동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했다.

강원도지부

장학금 전달식

양구군지회

지난 1월 8일 문화 복지 센터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천구지회는 양구지역 향토인재 육성의 산실로 자리매김하는 양록장학회에 여성단체와 합동으로 얻은 수익금 200만원을 장학금으로 전달했다.

동계오륜 유치 역량결집 캠페인

평창군지회

강원도 평창이 2014 동계올림픽 국내 후보지로 사실상 확정되면서 강원도민들은 지난 2010년 동계 올림픽 유치 실패를 거울삼아 '두번의 실패는 없다'는 각오로 반드시 유치에 성공하자는 의지를 다지기위해 지난 1월 8일 평창읍 하리 협의회에서 회원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 등 군 현안사업 추진에 공동으로 활동하고 군민화합과 발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충청북도지부

환경정화 운동

충주지회

환경오염의 문제는 오늘날 우리 지구촌을 둘러싼 문제들 중 가장 심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환경오염은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삶의 질과 생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지역간 및 더 나아가 국가간에도 갈등과 분쟁을 초래한다.

이에 충주지회는 지난 1월 21일 충주시 호암동 호암지 주변에서 회원들과 인근 E-mart직원 30여명이 함께 환경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실천적 정화운동을 전개하여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범사회적 동참을 호소했다.

이순신장군 동전 모으기 동참

진천지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신행정수도 지속추진에 대한 충북도민들의 신행정수도 추진의지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특히 신행정수도 후속대안은 신행정수도 지속추진을 위한 대안이어야 한다는 범충청권협의회의 결의에 따라 보다 강도 높은 후속대책수립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이순신장군 동전 150만개 모으기 운동에 지역 주민, 단체 등을 비롯해 사회각계각층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진천지회는 지난 1월 11일 진천군청 정문 앞에서 진천군수를 포함한 군의회 공무원, 진천관내 주요 사회단체 및 주민 1000여명이 참여하는 신행정수도 지속추진을 위한 이순신 동전모으기 운동에 동참해 신행정수도 사업의 조속한 확정을 촉구했다.

〈경기 안양시지회 : '체육 꿈나무 돕기' 벼룩시장〉

충청남도지부

불우이웃돕기

공주시지회

설 명절이 다가오는 지난 1월 20일 관내 불우한 이웃에게 따뜻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쌀떡과 세제류를 전달하면서 그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진정한 이웃 사랑의 모습을 실천하고 더불어 주부교실이 정의사회 구현에 앞장서는 봉사단체로서의 모범을 보이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전라북도지부

이웃사랑 릴레이 캠페인

익산시지회, 군산시지회, 전주시지회, 고창군지회, 김제시지회, 완주군지회

익산시지회는 지난 1월 11일 회원 5명이 익산시 신흥동에 위치한 '기독삼매원(고아원)'을 찾아가 여러 가지 이유로 부모에게 버려진 원아 37명에게 유아용품과 어린이옷을 전달하고, 어린 마음에 입은 정신적 상처를 따뜻한 사랑으로 어루만져주며 부끄러운 어른의 모습을 반성하게 되었다.

군산시지회는 1월 22일 관내 지역에 홀로 외롭게 살고 계시는 독거노인 3분을 찾아뵙고 설 명절을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성금 10만원씩을 전달하며 그들의 고달픔을 위로했다.

전주시지회는 1월 25일 전주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오전 9시~오후 10시까지 '자선회의 밤'이라 설맞이 이웃 사랑 자선행사를 개최해 어려운 이웃에게 중식제공과 함께 성금을 전달했다.

고창군지회는 1월 25일 회원 5명이 어려운 형편에도 삶의 희망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관내지역의 독거노인과 소년 소년가장에게 생활필수품을 전달하고 위로 격려했다.

김제시지회는 1월 28일 회원 18명이 무의탁 독거노인 27명이 거주하는 '김제 평강의 집'을 방문해 목욕 봉사활동과 주변 청소, 세탁물 정리를 도와드렸고, 중식제공과 함께 노인들의 말벗이 되어 드리는 환담의 시간을 가졌다.

완주군지회는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7일까지 완주군 평촌리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의 집을 방문해 회원 8명이 교대로 홀로 살고 계시는 집을 청소해 드리고 밑반찬과 떡국을 대접하면서 홀로 보내시는 설을 사랑 나눔으로 위로해드렸다.

〈전북 완주군지회 : 이웃사랑 릴레이 캠페인〉

전라남도지부

물사랑 교육과 캠페인

순천시지회

물은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지구 자원 중 하나이면서 지구 환경변화로 크게 위협받고 있는 자원이기도 하다. 2025년경에는 무분별한 물 수요의 증가로 심각한 물 부족 현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이에 순천시지회는 지난 1월 18일 순천조례종합사회복지관에 회원 150명이 착석한 가운데 「물, 자연 그리고 사람」을 주제로 한국수자원공사 물교육 전문교육 담당 송용길 교수의 '물'의 중요성과 효과적인 사용 방법 등의 강연 내용을 듣고 물 보존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또한 이날 오후에는 순천 연향동 국민은행 앞에서 피켓을 들고 가두 캠페인을 펼쳐 물사랑을 실천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했다.

따뜻한 명절 보내기 나눔행사

영암군지회

최대 명절인 설을 어려운 형편으로 쓸쓸하게 맞이할 영암군내 거주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가정 10곳을 방문해 떡국, 고기, 김치와 생필품을 전달하고, 훈훈한 이웃을 정을 나누며 그들의 삶을 위로 격려했다.

참사랑 실천 봉사 활동

구미시지회, 영주시지회, 경주시지회

구미시지회는 환경이 열악한 영세민과 결손가정의 자녀들 90여명에게 쾌적한 학습 환경을 제공해주는 구미시 상모동 무지개 공부방을 매주 화요일마다 회원 2인 1조가 방문해 중식제공시 모자라는 일손을 돕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영주시지회는 저소득 모자가정 5가구를 방문해 그들의 어려운 형편을 돕고자 현금과 생필품을 전하며 위로 격려했다.

경주시지회는 지난 1월 17일 안강읍내에 홀로 사시는 맹인 노인가정을 방문해 집 청소와 빨래를 해 드리고, 병원에 모시고 가는 등 봉사 활동을 했다.

〈전남 순천시지회 : 물사랑 교육〉

경상북도지부

경상남도지부

9개 지역 운영위원회 조직 관리

도지부

지난 1월 9일~25일까지 경남도지부 9개 지역 운영위원회가 각 월례회를 자체적으로 개최하여 2005년도 사업계획과 한마음대회 준비 및 주부교실 활성화 방안 논의 등 조직관리를 통해 봉사단체로서 사회에 모범을 보일 것을 다짐했다.

제주도지부

물가감시원 교육

도지부

지난 1월 24일 여성회관 3층 회의실에서 회원 5명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물가감시에 대한 모니터링을 숙지시키고 2005년도 물가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교육을 전개하였다.

설 대비 기초 생필품 특별조사

도지부

도지부는 지난 1월 25일 ~ 2월 3일까지 제주도청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회원 5명이 설 대비 특별 물가조사를 실시하였다. 기초 생필품 50개 품목에 대하여 제주시내 대형 매장 및 중소형 마트 11곳을 대상으로 총 4회에 걸쳐 조사를 실시해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 마련에 일익을 담당했다. ■

주부교실게시판

▶ 제64기 주부대학 수료식 및 제65기 개강 안내

주부들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인 주부대학의 제64기가 3월 23일(수) 강좌를 끝으로 6개월간의 교육과정을 마무리하는 수료식을 3월 25일 중구 구민회관에서 수료생 및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고 70명의 수료생을 배출하게 되었다.

이에 제65기 주부대학 수강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한다.

- 개 강 일 : 2005년 4월 4일(월) 10:30
- 교육기간 : 2005년 4월 4일 ~ 9월 23일(6개월)
- 문 의 처 : (02)2265-0637, 3627, 3628

▶ 2005년 세계물의 날 기념 시민대토론회 개최안내

2005년 세계물의 날을 맞이해서 본회에서는 물의 날 주제 "삶을 위한 물(Water for Life)에 맞추어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국내 물 사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물의 소중함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토론회를 개최한다.

- 일 시 : 2005년 3월 21일(월) 14:00
- 장 소 : 한국과학기술회관 대강당
  (지하철 2호선 강남역 8번출구 국기원 방향)
- 주 제 : 물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 주제발표
  - 지속가능한 수자원정책과 추진방향
  - 국민물교육과 물사랑 운동의 발전방향
  - 풍요로운 삶을 위한 물의 위락적 기능
- 토론
- 캠페인

▶ 물가감시원 및 물가실무자 교육 안내

물가안정을 도모하고자 가격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본회에서는 물가감시원 및 물가 담당 실무자의 역량을 제고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의 물가감시원 및 물가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교육을 실시한다.

- 일 시 : 2005년 3월 29일(화) 10:30~15:10
- 장 소 : 본회 4층 강당

▶ 소비생활에서 입은 피해 상담 및 구제

본회는 소비자들의 권익향상과 피해구제를 위해 전국 48개 지역에 소비자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불량상품, 부당가격, 부정계량행위, 허위과장광고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사례들을 접수받고 있다.

<신고요령>

① 상품 ② 제조업소명 ③ 구입년월일 ④ 구입가격
⑤ 구입처 ⑥ 사용사항 또는 고장상태 등을 전화 또는 서신, E-mail 등으로 신고

- 전 화 : (02)2273-2485, 6300, (02)2266-5870
- FAX : (02)2279-9341
- E-mail : nchc01@chol.com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5가 19-3 (100-015)